Weekly 공감
2013.02.11&18 NO.196
korea.kr/gonggam

기획특집

사이언스 코리아, 인재양성에 달렸다 P21~37

다문화가족 "한국의 설, 함께라서 좋아요" P38~46

6·25 정전 60주년…美 참전용사 "화상소녀 찾아주세요" P52~53

과학기술강국, 넘을 산 많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에 좌우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과학기술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휴대전화와 TV, 반도체 등 첨단 전자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과학기술강국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반면 세계 30여개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배출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일견 모순되는 이 두 가지 복합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소위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모델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로지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압축성장 정책을 써왔다. 이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고유한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게 되었다. 응용 및 개발연구는 발전했지만 그것들을 뒷받침해줄 기반기술 및 기초과학 수준은 많이 뒤처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약점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다. 추격형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게다가 중국·인도 등 후발국의 기술수준은 우리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결국 우리가 중진국을 졸업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에 좌우된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기초과학 지식의 뒷받침이 필수다. 젊은 과학자들이 과감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 간 길을 가야 하기에 폭넓은 기초과학지식의 뒷받침이 필수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초연구 기반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부응해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렸다. 기초과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을 설립하는 등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러나 단순히 여태까지 취약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과학기술강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 여건이 선진화해야 우리나라가 진정 과학기술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남이 안 해본 도전적이고 모험적 연구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이 안 해본 일을 하면 당연히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결실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연구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여건이 만들어지면 우리 국민의 뛰어난 창의성이 발현돼 21세기 창조경제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G

Contents

196호 2013.02.11&18 통권 297호

표지 이야기 | 어린이와 과학은 한국의 내일을 키우는 원동력이다. 어린이가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유력한 방법이다. 2012년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에서 청와대 푸른누리기자단이 바스프 어린이 화학실험교실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

기획특집

사이언스 코리아 인재양성에 달렸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22위, 과학경쟁력은 5위다. 과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월등히 앞선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발전을 이끌어온 숨은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이렇게 육성된 과학기술 인재들은 나로호 발사 성공이라는 대업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한국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과제를 짚었다.

21

44

12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3.02.11&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6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글로벌 영 코리안, 모든 부모의 바람

20대 아이 두 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세계를 꿈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취업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풍족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94호 기획 기사 '글로벌 영 코리안'을 보고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기사를 읽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해외 일자리에 도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영 코리안이 더욱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인터뷰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관련 기사는 먼저 눈길이 갑니다. 꼭 정부 관계자나 정책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예인·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람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소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엽 (은퇴자·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난호를 읽고

아웅산 수지 여사 방한 기사 읽고 감명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방한 기사를 〈위클리 공감〉에서 만나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지 여사가 이번에 평창에 왜 왔는지 궁금했는데, 지적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대목에서 그분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수지 여사이기에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의 발언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김민재 (학생·부산 연제구 연산동)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알고 복지국가 체감

정부에서는 복지 확대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국민이 그만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의 저소득층 원스톱 지원사업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보여준 듯 싶습니다. 지원단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합니다.

이치석 (취업준비생·서울 중구 장충2가)

나로호 발사 성공의 의미 상세히 알게 돼

세 번째 나로호 발사 과정을 TV를 통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실패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나로호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더군요. 나로호의 성공이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관련 기사를 통해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이 한국형발사체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명철 (학생·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석지영 교수 조언, 해외 향한 도전에 용기 줘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 성취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라." 석지영 하버드대 종신교수의 발언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사회의 잣대에 따라 명예나 부를 생각하며 일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다면 행복도 그만큼 커지리라 봅니다. 해외를 향한 도전을 앞둔 제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자극제가 됐습니다.

박영희 (직장인·부산 수영구 수영동)

2013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홍보작품 공모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전의 슬로건은 '함께 지킨 교통약속, 함께 누릴 유토피아'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줄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공모 주제는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문화 선진화 등 교통안전 및 질서와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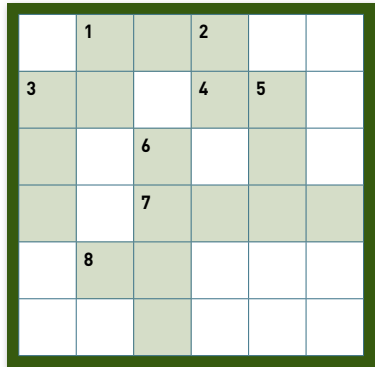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포스터(어린이·청소년·일반)
▶ 사진·UCC(일반)
공모분야 교통안전 및 질서와 관련된 모든 주제
공모기간 3월 8일까지
응모방법 직접 방문, 우편접수, 홈페이지(contest.koroad.or.kr) 접수
※ 접수처 : (우 : 100-789) 서울 중구 왕십리로 407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공모전 담당자 앞
시상내역 ▶ 포스터 :
– 어린이 부문 :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상금 30만원), 장려상 5명(상금 10만원)
– 청소년 부문 : 최우수상 1명(상금 80만원), 우수상 2명(상금 40만원), 장려상 5명(상금 15만원)
– 일반 부문 :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50만원), 장려상 10명(상금 20만원)
▶ 사진 : 최우수상 1명(상금 2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80만원), 장려상 10명(상금 30만원)
▶ 동영상 : 최우수상 1명(상금 3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100만원), 장려상 10명(상금 50만원)
유의사항 사진·포스터는 출품표 미부착시 접수 불가
문의 02-2230-6092, contest@koroad.or.kr

시민기자단 '산소지킴이' 모집합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평소 환경문제 및 실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기자단 '산소지킴이'를 모집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대상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개인 또는 팀(3명 이내로 구성)
제출서류 기자단지원서, 자기소개서, 환경 관련 주제 기사 1건
제출방법 이메일(kyoony@korea.kr) 접수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활동내용 블로그 홍보용 콘텐츠(기사) 기획 및 작성 (기본 월 2건 이상)
활동기간 2012년 4~11월(8개월간)
활동혜택 기자단 활동비 지급, 월별·연말 우수활동기자 포상
응모방법 이메일(kyoony@korea.kr) 접수
문의 031-481-1358

낱말맞추기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추기 196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2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으로 정부는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3. 출판물을 펴내거나 화폐 등을 찍어 세상에 내는 일.
4. 두 학급 이상이 합침.
7.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8.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 "우리 민족의 특성은 은근과 ○○다."

세로

1. 뜻밖에 일이 잘 풀려 운이 좋음. "다치지 않은 것만도 ○○이다."
2. 화목하게 어울림.
3. "나로호 발사 성공을 발판으로 ○○○ 독자개발을 앞당긴다."
5. 상처났을 때 연고나 붕대 등을 붙이는 데 쓰이는 헝겊이나 테이프.
6. 자연과학·응용과학·공학 등을 적용하여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

〈위클리 공감〉 194호(1월 28일자) '공감 낱말맞추기' 정답
가로 1 글로벌 3 이사 6 장바구니 7 모성애 8 인선
세로 1 글피 2 벌이 4 사랑니 5 학부모 6 장애인

〈위클리 공감〉 194호 '공감 낱말맞추기' 당첨자
최정옥·대전 동구 대전로　김도희·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
최성열·충북 청주시 흥덕구　김민균·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김기철·서울 광진구 자양동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네 얼굴만 봐도 행복해!"

〈위클리 공감〉이 개최한 새해 맞이 가족사진 공모전에 따뜻한 사연이 듬뿍 도착했습니다. 응모 사진 중 우수작 6점을 골랐습니다. 새해의 소망,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사진과 사연들에서 2013년을 향한 희망과 기대가 느껴집니다.

웃는 딸의 얼굴에 넘치는 행복

저가 식구들과 공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사진을 찍는 저를 발견하고는 웃으며 달려오는 딸의 모습이 마냥 예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뒤에서 웃음짓는 세 모녀도 흐뭇한 표정입니다. 역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박경환 (인천 서구 마전동)

늘 웃는 남편에게 돈복 생겼으면

14개월 된 딸과 남편과 함께 경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남편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억지로 얻은 휴가였습니다. 아기가 아직 혼자 걷지 못해 조금 고생스러웠어요. 하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우리 신랑, 새해에는 돈복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만큼의 수입만이라도 유지했으면 합니다.

류민정 (대구 달성군)

연년생 두 아이 무럭무럭 자라길

놀러 나가자고 조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순천의 낙안읍성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추웠던 날씨인데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전혀 춥지 않더군요. 연년생으로 태어난 우리 안젤라와 요한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안젤라야, 요한아, 아빠는 너희를 무척 사랑한단다.

최동진 (광주 서구 양동)

할아버지·할머니는 네가 있어 행복하단다

손자 승우(3)는 자신을 매일 돌봐주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밝게 자라는 승우가 있어 든든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올해 8월이면 승우 동생이 태어납니다. 할머니·할아버지는 손자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최명석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손자들과 소중한 추억 만든 여행

지난해 온 가족이 여수엑스포를 보러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손자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이갑희 (대전 동구 용운동)

두 남매 키우는 당신 고맙고 사랑해

둘째아이 100일을 맞아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가 동생을 안았다고 큰아이가 새침한 표정을 짓는데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요. 사랑하는 아내!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요. 새해에도 열심히 삽시다. 사랑해요.

황석영 (부산 금정구 장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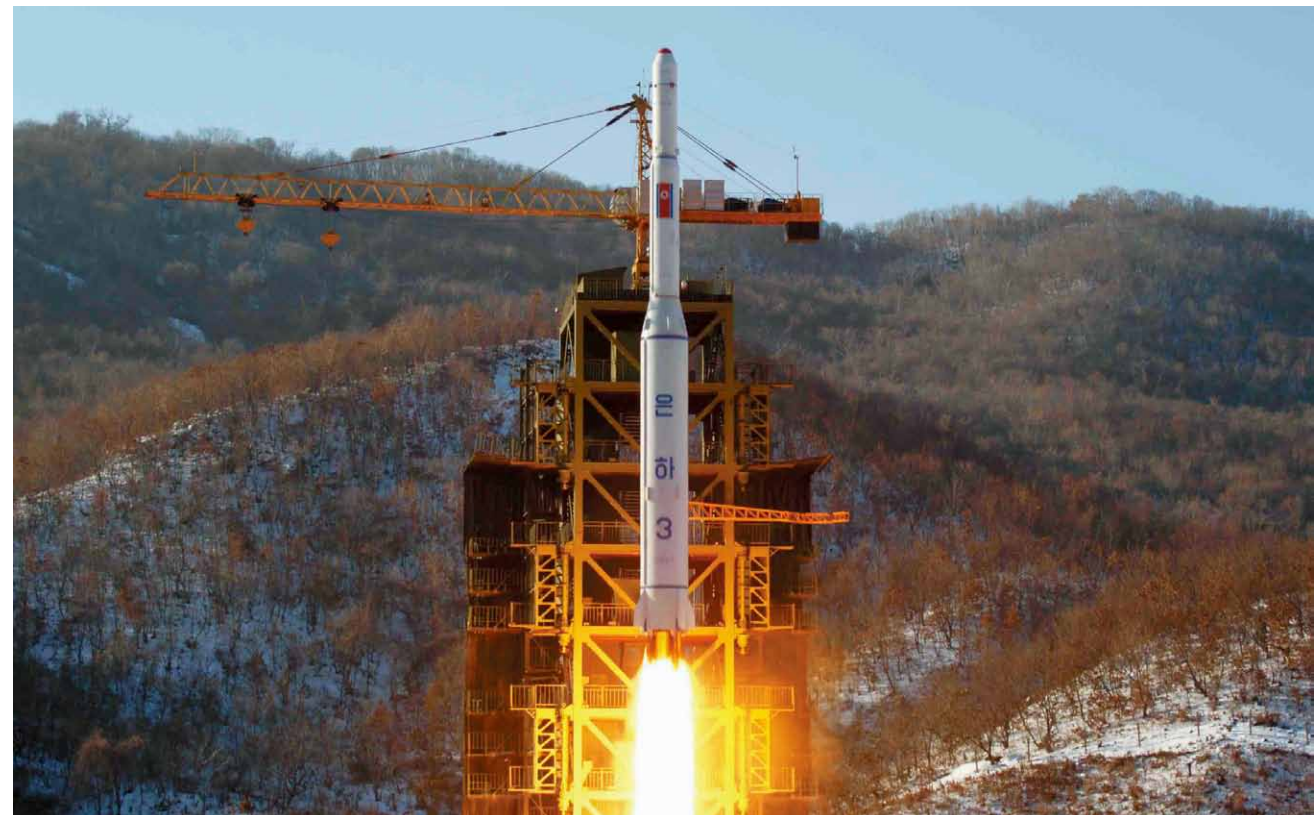
억지력 확보하고 출구전략 병행해야

북한의 잇단 강경발언… 제3차 핵실험 외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

최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여부에 국내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 채택이 체제에 대한 모독이며, 따라서 핵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적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서려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본다.

왜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이후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는 여러 배경이 있다. 먼저 북한 내부사정이다. 냉전시대 미국의 전략가 조지 캐넌은 소련의 대외정책이 외부 환경변화보다 내부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북한 역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외부환경을 내부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핵무기는 체제 보위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의 '가보'인 것이다.

북한의 처지에서 핵무기 개발과 그 사용 위협은 비록 단기적이나마 협상 카드로서 가치도 있다. 북한은 겉으로는 당당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내부사정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무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즉, 자신들의 핵 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협상하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말과 달리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쏘아 올리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장거리미사일에 이어 핵실험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목적은 단지 시간과 돈을 벌자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대화 초기에는 성의를 보이다가도 검증이나 사찰 문제가 나오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

최근 북한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핵실험을 위한 명분축적용으로도 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78호는 이미 예고된 조치일 뿐이다. 그간 수차례 북한에 경고했던 장거리미사일 실험금지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도발로 간주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제3차 핵실험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다.

함북 풍계리의 북한 핵 실험장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지난 1월 23일 촬영됐다. 갱도 입구가 뚜렷이 드러나 있고, 공사용 자재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이렇듯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전략적 행보 속에서 주변을 위협하거나 속임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불행히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형국이다.

북한 3차 핵실험, 값비싼 대가 치를 것

그러나 북한의 핵 모험은 다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과거와 달리 주변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던 중국마저 입장이 변했다. 미국과 새로운 대외정책을 펼치려는 시진핑 체제가 첫 출발부터 북한문제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단지 북한의 더 나쁜 행동을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 선회는 그들이 언제까지나 북한 편에만 설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078호에 이미 담은 바와 같이 더욱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채택할 것이다. 이때 '강도 높은' 제재 내용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북한과 일반무역거래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추가적 경제제재, 북한 선박의 기항(寄港)과 북한 물자의 선적을 금지하는 해운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유엔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인근 해역에서 유엔 차원의 군사훈련을 전개하거나 북한 해역을 봉쇄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일부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을 고려할 때 북한이 몰락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에 강도 높은 제재에 선뜻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북한은 상황 돌파를 위해 국지 무력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 같은 기습공격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무차별 공격도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이처럼 추가 제재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과 군사 도발 위협을 두려워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

군사역량 강화, 정밀타격 능력 보강을

북한의 불법행동은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북핵 불용과 도발 억제'라는 한국의 입장을 확산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감시·정찰하는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수립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복잡하게 엉켜버린 북한 핵 문제는 비로소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G

글·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 7일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위기일수록 합심하는 모습 보여야”

박 당선인 “북한은 핵으로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 여야 대표도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 7일 한자리에 모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비해 여야를 넘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비핵화원칙과 안보에는 모두 한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당선인이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환한 얼굴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나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놓고 당선인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직후였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황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회동은 2월 6일 박 당선인이 제안한 북핵 관련 여야 긴급회의와 민주통합당의 4자 긴급회동 제안을 토대로 새누리당이 절충안을 수정, 제안해 하루만에 성사됐다. 박 대통령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함께 만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오늘 문 위원장과 황 대표 두 분을 모신 것은 북한이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나가야 되는데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정권교체기에 있는데 이런 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발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강한 억지력으로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문제에 대해 합심하고 국민께 든든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민주당 비대위원장 “더도 덜도 없이 생각이 똑같다”

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도 덜도 없이 생각이 똑같다”며 “전세계에 ‘우리는 안보에 대해 여야가 일치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모든 주민이 불안해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특히 대통령당선인과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설날 큰 선물”이라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안보에 한해 우리는 똑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회담의 의미를 평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종래와 다른 의미가 있어서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위중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실효적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모임에 큰 의미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당선인과 힘을 모아 설을 앞둔 국민이 편안한 설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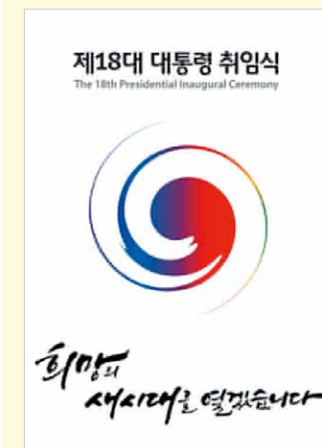
박 당선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을 갖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이런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면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고 더욱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야당대표를 자주 만나고 언론과도 소통하길 바란다. 48%의 국민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48%를 잊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겠다. 다 품고 가겠다. 여러 제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글·조용탁 기자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국민행복시대 의지 담아 의미 있는 행사 마련

취임식 엠블럼
태극을 모티프로 대한민국, 국민, 화합을 나타내면서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염원과 역동성을 상징한다.

‘통합과 전진 – 국민의 삶 속으로’

2월 25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의 개념과 기조다.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희망찬 새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와 국민과 함께 웃고 울면서 행복한 국민시대를 열기를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이에 맞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취임 행사는 2월 25일 0시를 기해 새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종 타종행사로 시작된다. 타종행사에는 지역과 계층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대표 18명이 참여한다.

박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오전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취임식 행사는 국가 의전 관례를 따르되,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참여한다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우선 식전행사는 통상의 관람형 공연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싸이를 비롯해 세대와 계층,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한다.

공연을 마친 다음에는 취임행사의 백미인 박 당선인의 취임선서가 진행된다. 취임선서는 군악대와 의장대 행진, 취임사 등 국가 의례에 따라 진행된다.

이때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축하공연을 포함했다. 경축 연회와 외빈 만찬은 국내외 각계를 대표하는 귀빈들을 모시고 검소하게 의전 관례에 따라 진행된다.

이날 취임행사에는 모두 6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선 제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박근혜정부가 새로 출범한다”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취임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제현장서 듣는 진짜 서민 목소리

경제1분과, 가업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 구상… 물가와 서민체감경기 확인 나서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현장방문을 위해 선택한 곳이다. 장바구니물가와 서민체감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서민 채무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모두 '서민경제'로 통하는 곳이다.

인수위 위원들이 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기는 목이 좋아 장사가 아주 잘되겠어요."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전통시장인 영천시장 입구 과일가게 앞이 시끌벅적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류성걸 간사 등 여러 위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반갑게 이들 손님을 맞이한 '중앙청과' 주인은 박동찬(68)씨. 인근 사회복지관에 보내기 위해 딸기를 구입한 류 간사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내밀며 "상품권도 받지요" 하고 박씨에게 물었다.

"당연히 받지요. 바로 입금시키고, 뭐든 바로 할 수 있어요."

박씨는 류 간사에게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1분과 위원 일행은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꽈배기 상점에 이어 족발집을 찾았다. '한방왕족발' 주인 유종원(58)씨는 "이곳에서 10년째 장사한다"며 "지금까지 개발한 비법을 아들(27)에게 물려줘 가업으로 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류 간사는 "열심히 노력해 좋은 상품을 개발했는데 가업승계가 안 되면 단절된다. 앞으로 가업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전통시장 시설 낡아 연계관광 개발 어렵다"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 밖에도 생선가게·젓갈가게·정육점 등을 두루 들러 설을 앞둔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등을 살폈다. 영천시장상인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경제1분과 류 간사와 위원들은 이평주 상인회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회장 등은 "인근 독립문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 영천시장과 연계관광 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낡은 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노후한 아케이드 설비 교체, 화장실·주차장 신설 지원 등을 요청했다. 상인대표들은 "전통시장 시설 가운데 아케이드의 설치나 철거를 결정할 때 동의율이 100퍼센트여서 비현실적"이라며, 노숙자들의 음주장소로 변질해 제 기능을 상실한 인근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시장 주변도로의 평일 주차 허용, 전통시장 카드 사용시 세금공제 확대 등도 요청했다.

영천시장 방문을 마친 경제1분과 위원들은 서울 중구 명동의 신용회복위원회로 걸음을 옮겼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 회생을 지원할 목적 아래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 이종휘 위원장 등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이용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들의 사례발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신용불량 서민의 생생한 고충 듣고 꼼꼼히 메모

먼저 손지태(29)씨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 가족 생활비와 대학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신용불량자가 됐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손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통합관리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기열(45)씨는 "사업이 잘못된 데다 다단계사업에 잘못 발을 들여놓아 빚이 3억원이나 됐다. 독촉전화가 많을 때는 하루에 50통도 걸려오고, 일주일에 다섯 번은 사람이 찾아왔다. 결국 당시 17살이었던 딸아이가 가출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딸아이도 4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채무자 가족까지 괴롭히는 부분은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어 "73개월 동안 빚을 다 갚은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곳이 없었다"며 "다시 대부업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재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떼고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는 김병호(55)씨는 과거의 설움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말했다.

"신용을 잃고 산다는 것, 너무 비참했습니다. 계속 독촉당하고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아요. 이자까지 3,000여 만원이었습니다."

김씨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이 끊어져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금액 탕감뿐 아니라 취업으로 연결돼 삶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신용회복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메모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적극 협의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신용불량 막을 선제적 금융교육 필요"

오늘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서민의 체감경기와 물가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박근혜정부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직접 와 보니 어떠셨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노후했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품질 좋고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새 정부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등도 그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시장의 자구노력도 필요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요청한 상인들도 여러 명이라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 2000년에는 200억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4,000억원으로 늘었는데, 박 당선인은 오는 2017년 1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신용불량자 사례를 접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을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지원해주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직접 서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사례 발표를 듣고 '선제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신용불량자들은 회복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용을 유지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금융 관련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향후 현장 목소리들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역할과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의하신 것처럼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구체화할 기술인력 부족"

교육과학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곳서 연구원들 창조경제 제안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의 과학분야 위원들이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부인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다. 이날 교육과학분과의 현장방문은 대전과 서울의 일선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대덕특구 현장방문에서는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계 활성화,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의 장순흥 인수위원을 비롯한 과학분야 위원들이 2월 4일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가 교육분야 위원들과 함께 등명초교와 공항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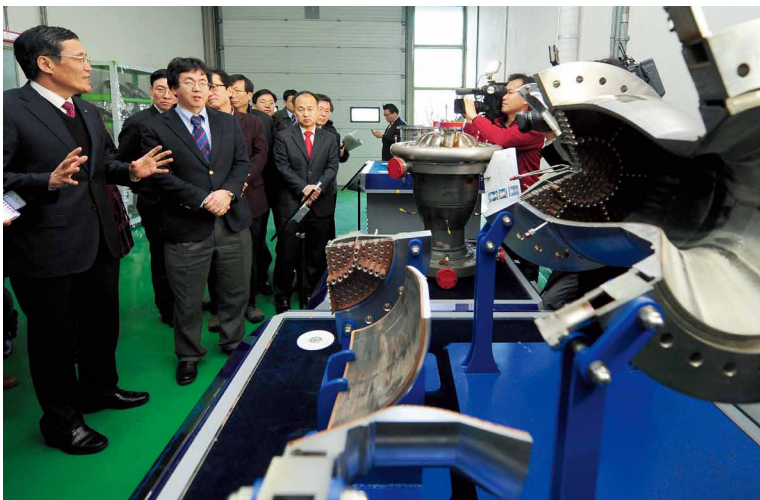
장 위원이 이끄는 과학팀은 대덕특구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대덕테크비즈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모두 6개 현장을 방문했다.

1973년 국책연구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특구는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들어섰다. 2005년 '기술산업화 중심'의 연구개발특구로 전환했다. 현재 정부출연기관, 국·공립기관, 기업체 등 1,399개 기관이 입주한 우리나라 최대 연구단지다.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의 첫 일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열린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였다. 토론회에는 진흥재단 관계자와 대덕특구 연구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기술, 창업, 일자리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장 위원은 인사말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출발한 대덕특구가 40년이 지나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프런티어가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과학벨트사업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한 만큼 많은 분이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학벨트사업은 창조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게 하여 세계적 과학 기반 혁신 클러스터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업이다. 2011년 4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대덕특구와 대전 신동·둔곡지구, 세종시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장순흥 인수위원과 전문위원들이 2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현장방문해 로켓 발사체의 연소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등을 연계하는 거점지구·기능지구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학벨트와 대덕특구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가 끝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재구 이사장은 "대덕특구는 과학벨트와 연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기술사업화와 창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찬을 겸해 열린 '과학기술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는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과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연구 투자 필요 ▶비인기 분야의 연구인력 부족 ▶연구결과를 구체화하는 기술인력 부족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문제 등 대덕특구 연구원들의 애로사항과 제안들이 발표됐다.

이어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벤처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덕테크비즈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1월 30일 세 번째 시도 만에 나로호의 발사 성공을 거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다. 장 위원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달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원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축하의 말부터 전했다.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나로호가 성공해 국민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며 "나로호는 발판이다. 발판이 잘 놓여져 한국형발사체 등의 개발에 매진해 나로호 발사가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매일 새벽 두 차례 나로과학위성 교신 위해 야근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은 이어 예정에 없던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로 발길을 옮겼다.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이곳에서는 전체 직원 28명 중 20명이 매일 새벽 3시반, 5시10분 두 차례 나로과학위성과 교신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중이었다.

이인 인공위성연구센터 소장은 "우리 센터는 현재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등 소형 인공위성 제작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의 마지막 방문지는 대덕특구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다.

ETRI는 1980년대부터 전자통신기술(ITC) 기술 분야에서 각종 '세계 최초 개발' 기록을 세우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급성장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지난 35년간 ETRI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69조 8,095억원으로 평가된다. 또 ETRI창업기업은 479개에 이르고, 2011년 미국 등록특허 통합 부문(정부기관·연구소·대학)에서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다.

장 위원은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에게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창조경제에서 가장 앞장서서 뛰어야 할 곳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먹거리와 벤처 창업을 위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보통신기술(IT) 융합에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 벤처 육성에 한몫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새벽 서울 창성동을 출발한 위원들의 버스는 다시 서울을 향했다. 창조경제를 꽃피울 구상, 알찬 벤처 창업의 씨앗을 마련해 이를 발아시킬 시스템을 위한 제안들을 한아름 안고서였다.

글·박경아 기자

장순흥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벤처 씨앗 많이 뿌리고 잘 자라야 일자리 창출"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덕은 40년 전부터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할 창조경제의 최전방이기도 합니다. 대덕특구는 앞으로 창조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제2 벤처 붐' 기대가 큽니다.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벤처를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벤처 창업을 위한 좋은 씨앗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씨앗이 발아해 잘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 개발 자체보다 훌륭한 씨앗을 키워 확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찬 간담회에서 많은 애로사항,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과학분야, 특히 기초과학분야 연구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활기를 잃은 대덕특구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활기를 찾아줄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소외감을 느껴온 연구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올라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좋은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위원들은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대덕특구에는 경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경사의 중심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축하차 방문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도 몇 년째 인건비 부족을 겪으면서도 열성적이었습니다. 과학벨트 관련 부지 예산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이 활성화해 대덕특구 땅값이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만큼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만큼 대덕특구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에서 대덕특구가 수행할 역할은요?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기술은 과학기술과 IT를 통해 산업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덕특구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나오고, 그 기술을 확산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두 가지만 잘된다면 대한민국은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 것”

교육과학분과, 학생·교사 만나 ‘주입식 교육 탈피’ ‘체육시설 확충’ 등 바람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이 2월 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등명초등학교와 공항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은 이날 먼저 등명초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등을 둘러봤다. 공항고교로 자리를 옮긴 위원들은 학생·교사들과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1 등명초교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
2 곽병선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맨 왼쪽)와 위원들이 공항고교 학생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2월 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의 현장방문은 곽병선 간사와 김재춘·최원기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등명초등학교와 공항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등명초교와 공항고교를 현장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두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라는 것이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교사·학생들의 건의사항 등이 두 학교에서는 더욱 절실하리라는 판단 아래 이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였다.

등명초교를 방문한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은 먼저 이상래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교장은 등명초교의 경우 전교생 248명의 약 41퍼센트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으로, 집중지원학생 비율이 유난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황보고에 이어 위원들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명초교가 운영하는 보육과 교육을 겸한 ‘돌봄교실’을 참관했다.

예산 줄어 새해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 호소

곽 간사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파악한 후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 준비한 것이다. 즐겁게 받아 줬으면 좋겠다”라며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격려했다.

돌봄교실을 둘러 본 후 곽 간사는 교사들과 면담시간을 마련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곽 간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상래 교장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즐겁고 활력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며 “3주 뒤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다. 바라는 점이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는 인사말로 발언을 유도했다.

등명초교 교사들은 “사교육 없이 돌봄교실과 토요일 동아리 활동만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복지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또 “일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보내지 않은 채 일하러 나가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 깨워서 데리고 온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애로가 많다”며 관련 인력 충원을 희망사항으로 내놓았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등명초교에서 일정을 마친 곽 간사와 위원들은 곧바로 인근 공항고교로 자리를 옮겼다. 공항고교는 전교생의 4분의 1이 학교 지원을 받고 있다. 정세만 교장의 학교현황 보고를 들은 곽 간사와 위원들은 이어 학생·교사와 대화시간을 가졌다.

“학생부장 맡으려는 선생님이 없다”

학생들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교권 또한 높아졌으면 좋겠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배드민턴부에 들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배드민턴을 하고 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야간자율학습의 집중도도 더 높아진다”며 예체능교육 활성화를 희망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학교시설 개선, 교사와 소통창구 확대, 주입식 교육 탈피, 공부 이외의 특기 육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교사들과 대화에서는 학생부장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 교사는 “학생부장교사는 때로는 검사가 되어야 하고, 판사도 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야 한다. 학부모를 소환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수업은 해야 한다. 학교수업과 생활지도를 병행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학생부장직을 맡으려는 선생님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이 가정문제로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쓰기 힘들다. 가정상담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단계별 교육, 폭력 없는 학교 구현, 체육시설 확충 등을 주문했다.

곽 간사는 이 자리에서 “월요일만 되면 학생들이 빨리 등교하고 싶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체육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

글·박기태 기자 사진·지미연 기자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

“수능과 수시입학 꼼꼼하게 검토해 보완”

등명초교·공항고교를 현장방문지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학교 모두 주변지역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학교를 방문해 학교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보고 듣기 위해 두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두 학교 방문에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등명초교는 다행히 학생들의 가정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 학원에도 다니지 않고도 국제중학교에 들어갔다는 좋은 사례도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질환이 있어 자포자기했던 한 학생이 며칠 동안 등교하지 않자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머니도 살리고 아이도 돌본 일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국악에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돌보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생·교사와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요?

“공항고교 학생주임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문제 해결도 어렵고 수업까지 해야 해 학생주임직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교수업도 중요하지만 문제학생들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교과수업뿐 아니라 체육활동 등 기초체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학과 성적을 올리는 데 긍정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책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공약했듯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기초체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 수능과 수시입학 문제도 꼼꼼하게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특성 있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교육입니다. 행복교육 구현을 위한 한 축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길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도 행복하고 선생님들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축은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동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꿈과 끼,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충,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행복교육의 세 박자입니다.”

"회수율 떨어져 처리 폐가전 모자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 파쇄기 거쳐 재활용 자원 분리과정 살펴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2월 5일 경기도 용인시의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를 현장방문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을 대부분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자원의 사용 요구가 절실하다. 적법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원선순환사회 구축에 중요한 요소다.

"우리 리사이클링센터는 여러 물류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제품을 해체하고 처리해 플라스틱·고철·알루미늄·구리 등 재활용 순환자원을 생산합니다."

2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이혜진 간사와 이승종 인수위원 등 여러 위원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했다. 이곳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의 김보생 연구소장이 위원들을 생산공장으로 안내하며 설명했다.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전국에 만든 7개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 중 하나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납·구리·형광물질·프레온가스(냉매용) 등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 이들을 그대로 버릴 경우 수질과 토양의 오염을 불러온다. 전자제품 폐기에 따른 이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자제품 생산자들이 결성한 것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다.

안전모를 쓰고 리사이클링센터 생산공장으로 들어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은 먼저 폐세탁기·냉장고의 전처리 공정 라인을 둘러보았다. 대형 기계로 파쇄·선별하기 이전 수작업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특히 전처리 공정에서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냉장고의 프레온가스를 냉매흡입기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이어 후처리 공정 라인으로 다가가자 금속성 물체들이 내는 엄청난 소음이 들려왔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이 2월 5일 경기도 용인시의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 생산공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이곳에서는 파쇄기로 폐가전제품을 파쇄한 후 먼저 철을 골라내고 남은 파쇄물은 분쇄기로 보낸다. 분쇄기를 거쳐 선별기에 도착한 파쇄물은 다시 구리·알루미늄·플라스틱으로 분리돼 재활용 자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이진기 실장은 이날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은 2000년 국민 1인당 0.9킬로그램에서 2011년 2.5킬로그램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회수 미비로 인한 재활용 처리 물품 부족,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자원 해외유출, 냉매 누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폐가전 문전수거하면 원형 보전율 95.5%

현재 우리 국민이 폐전자제품을 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제품 구매 때 신제품 판매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경우와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배출예약 시스템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문전수거를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6~12월 문전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형 보전율이 20.5퍼센트에서 95.5퍼센트로 상승했다고 한다. 원형 보전율이 왜 중요한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의 유인성 대표가 설명했다.

"일부 폐전자제품은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수거상을 통해 수거돼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수거한 폐 냉장고 등은 유해물질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고, 돈 되는 금속부분은 다 떼어낸 뒤 불법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철판까지 떼어내고 우레탄만 남은 '누드 냉장고' 상태로 우리 센터에 들어오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 리사이클링센터 공장 가동이 어렵습니다."

폐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중심으로 자원재활용사업을 하는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의 윤상헌 사업팀장은 제도적 지원을 당부했다.

"개인 재활용업체들도 영세하지만 자긍심 갖고 일자리 창출, 자원재활용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쓴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화성군의 민간 종합 재활용센터인 '나래리사이클센터'의 윤성필 이사는 "재활용 자원 생산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문전수거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며 "금속 재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영세 수거업체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필요"

여러 영역중에서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를 찾은 이유는?

"자원 빈국, 에너지 빈국인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자원선순환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이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인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자원순환의 현장을 확인해 정책제안서 준비에 활용하기 위해 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폐기물 배출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예전에는 이를 다 '쓰레기'로 생각했는데, 상당부분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배출되는 상당량의 폐기물이 자원화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폐기물 배출에도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를 둘러보신 소감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기물이 어떻게 새로운 자원으로 재생산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부나 산업현장 생산자들이 이곳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원화하는 데 좋은 폐기물은 산업현장이나 대형식당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업종 종사자의 견학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서 영세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 아이디어도 나왔는데요?

"고물상·넝마주이로 불리는 영세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은 재활용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제도권에서 흡수하면 본인들도 사명감도 갖게 되고, 사회의 법질서 안에서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식 선진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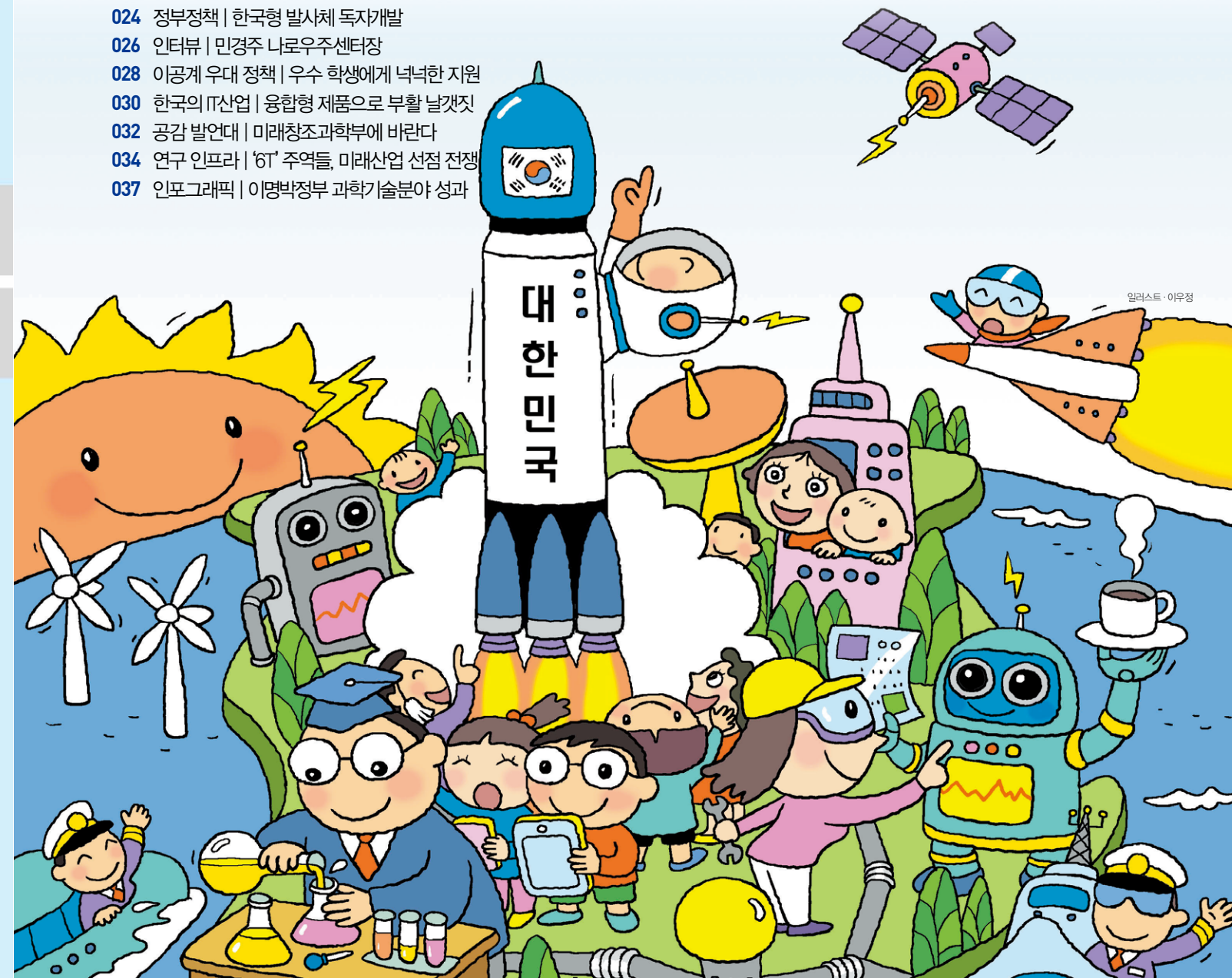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원선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 제정이 끝난 후에는 법을 실현할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박 당선인께서는 사고나 범죄, 환경재난으로부터 누구나 어디에서나 안전한 '안전한국'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한국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또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교화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특집

사이언스 코리아, 인재양성에 달렸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22위, 과학경쟁력은 5위다. 과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월등히 앞선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발전을 이끌어온 숨은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도 그 일환이었다. 이렇게 육성된 과학기술인재들은 나로호 발사 성공이라는 대업을 통해 한국을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과학기술은 한국을 영원히 부강한 나라로 이끌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일러스트 · 이우정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6년 새 2배 증가

금융위기에도 투자 대폭 늘려…국가경쟁력 22위, 과학경쟁력 5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꾸준한 상승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내놓은 2012년 종합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조사 대상 59개 국가 및 지역경제 가운데 22위를 유지했다. 국가경쟁력보다 눈에 띄는 분야는 과학경쟁력이다.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5위다. 2006년 10위였다 꾸준히 상승해 5위까지 올라섰다. 2009년에는 세계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중에도 한국은 연구개발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덕분에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수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반면 기술경쟁력은 떨어졌다. 2006년 6위까지 올라섰다 2012년 14위로 하락했다. 한국이 주력했던 통신분야 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국가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은 2006년 12위였다 2011년부터 20위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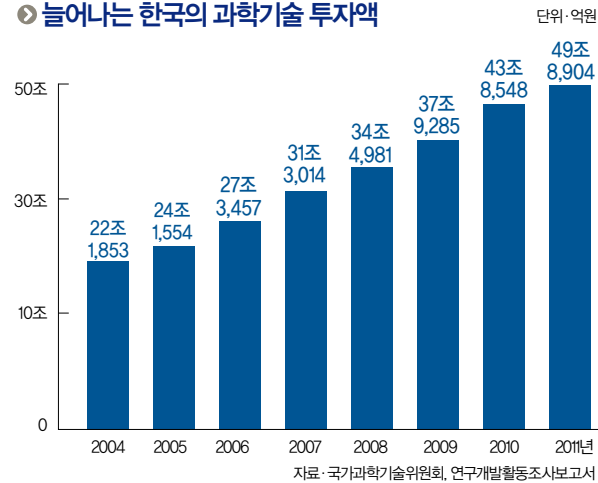
과학기술 투자 규모 2011년 GDP의 4% 첫 돌파

정부가 제공하는 과학기술통계서비스(sts.ntis.go.kr)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총연구개발비는 2011년 49조8,904억원에 달했다. 2005년 24조1,554억원에 비해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을 연구개발비에 쏟아부었다.

한국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010년(15.6퍼센트)과 2011년(13.8퍼센트) 두 자릿수 대를 유지했다. 다른 나라와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다. 2011년 과학기술투자는 사상 처음 GDP의 4퍼센트대(4.03퍼센트)를 돌파했다. 과학기술인력도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0명을 초과한 11.5명을 기록했다. 인구 1만명당 58명이 과학기술에 전념한다. 정부의 꾸준한 과학기술투자가 한국 과학기술을 이끌어 한국 경제가 든든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G

글·박상주 기자

늘어나는 한국의 과학기술 투자액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의 2012년 IMD 국가경쟁력과 과학경쟁력 순위

국가경쟁력 22위

과학경쟁력 5위

기술경쟁력 14위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위 10개국

국가	COSTII*	상대수준**					순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20.120	100.0	100.0	100.0	100.0	100.0	1	1	1	1	1
스위스	14.804	68.6	70.5	74.8	72.8	73.6	3	3	2	2	2
일본	14.202	71.5	72.4	72.1	71.0	70.6	2	2	3	3	3
독일	13.907	63.4	65.1	66.7	67.7	69.1	7	7	4	4	4
스웨덴	13.209	67.6	64.0	65.1	65.4	65.7	4	8	6	7	5
핀란드	13.044	63.9	65.6	66.4	65.6	64.8	6	5	5	6	6
네덜란드	12.731	57.7	57.7	59.3	61.1	63.3	8	9	9	8	7
아이슬란드	12.044	67.1	70.1	64.8	66.2	59.9	5	4	7	5	8
한국	11.753	53.8	52.4	53.4	55.5	58.4	12	13	13	11	9
프랑스	11.553	50.1	52.0	54.1	57.0	57.4	15	14	12	9	10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1위 국가의 수치를 100으로 할 경우, 각 국의 수준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 대선공약 성과보고서 2013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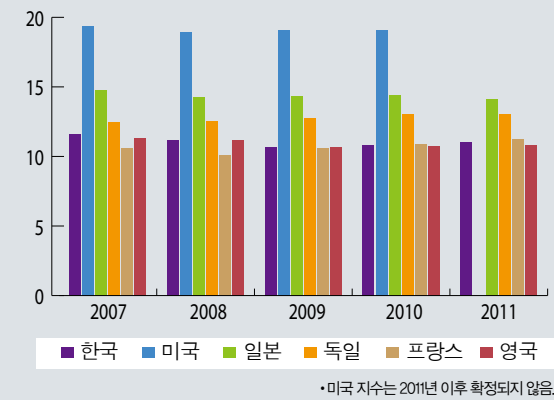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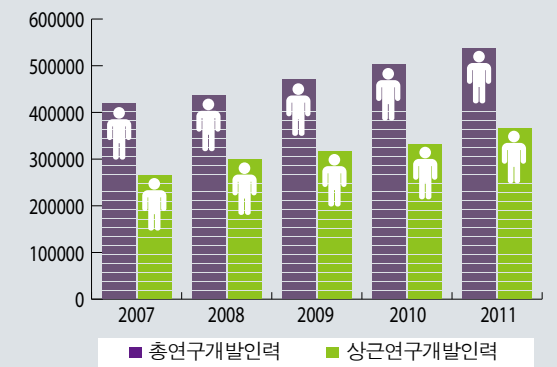
20
15
10
5
0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지수는 2011년 이후 확정되지 않음.

한국의 연구개발인력 증가 추이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연구개발인력 ■상근연구개발인력

2001~2011년 주요국 학문분야별 논문 점유율 현황

180% 140% 100% 60% 0%

300% 200% 100% 0%

임상의학 화학 물리학 공학 식물/동물과학 생물/생화학 재료과학 사회과학/일반 신경 행동과학 지구과학 분자생물/유전학 환경 생태학 컴퓨터과학 수학 정신의학/심리학 농업과학 약학/독성학 미생물학 경제/경영 면역학 우주과학 융합분야

도표 해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발표한 학문분야별 논문 점유율이다. 전문가집단에서 과학기술 연구 성과는 하나의 논문을 다른 전문가나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가로 평가한다. 세계적으로 인용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1퍼센트인 논문만 추려 나라별로 구분했다. 방사형 표는 방향별로 해당 논문이 어느 학문분야인지 알려준다. 위쪽 국기로 구분된 방사형 표는 해당국 논문의 갯수별 분포도다. 한국은 재료과학·공학·화학 쪽 논문이 많고 중국은 공학과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영국·독일은 전 분야에 걸쳐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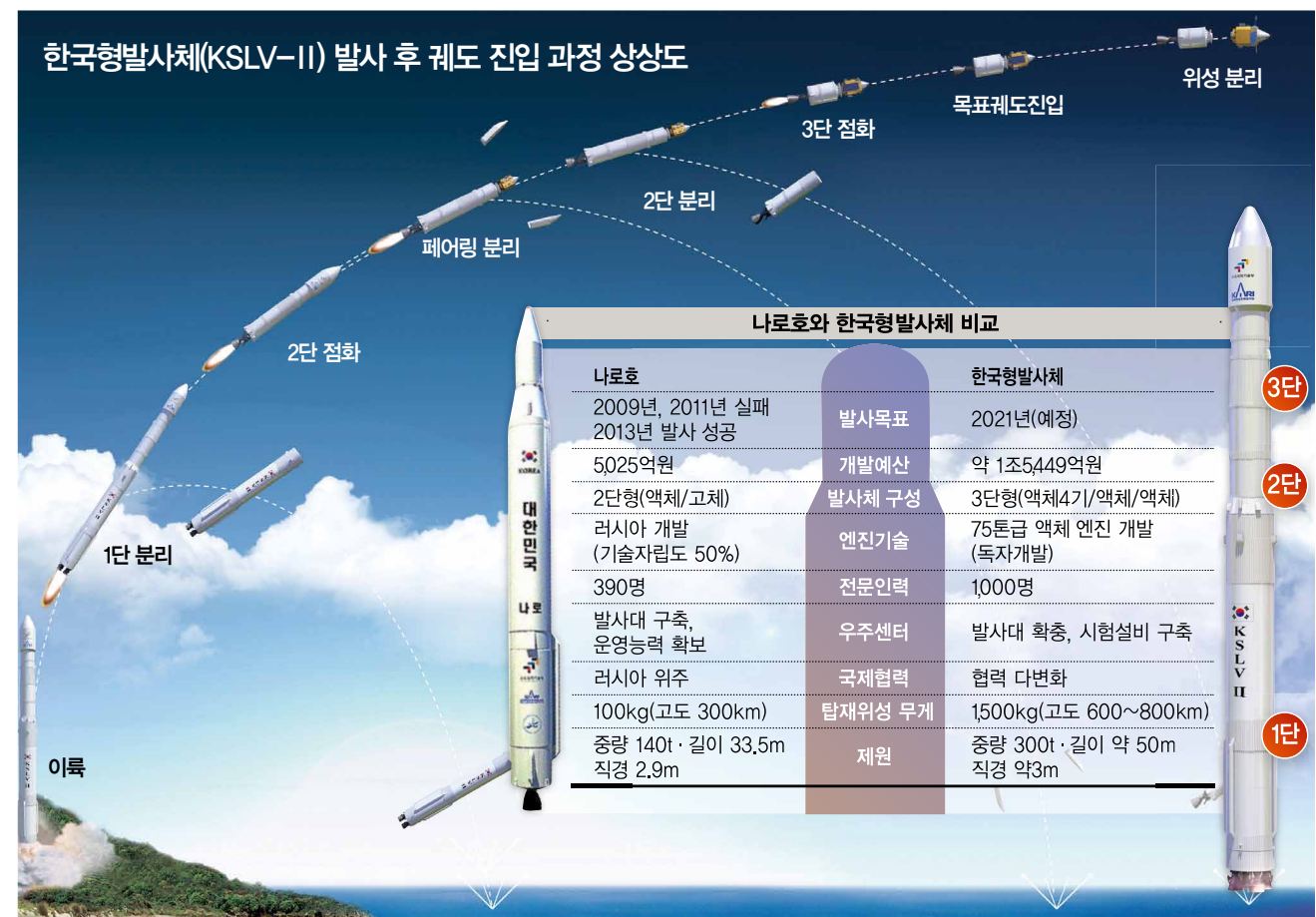
2배 더 높이 15배 무거운 위성 올린다

나로호 성공 도약대 삼아 독자개발 발사체 2020년 시험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요즘 사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나로호(KSLV-Ⅰ) 발사 성공을 발판삼아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로 목표궤도를 수정했다.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형발사체는 오롯이 우리 기술로 만든다. 이런 꿈이 실현된다면 말 그대로 우주기술의 대한독립이다. 한국의 우주과학이 또 한번 도약할 채비를 갖추었다.

'발사대에 발사체를 올린 뒤 엔진에 점화하고 카운트다운을 한다.' 텔레비전에 비치는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이다. 하지만 이 멋진 장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마무리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면을 보기까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한다. 발사체를 발사대에 세우기까지는 수백 번 넘는 실험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오롯이 우리 과학기술로 이뤄낼 계획이 세워졌다. 바로 KSLV-II 개발이다. KSLV-II는 우주기술의 대한독립을 이룰 한국형발사체의 공식 명칭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9년 KSLV-II 1, 2, 3단 로켓을 모두 만들어 조립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모형 위성을 탑재해 시험발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2021년에 드디어 한국의 과학기술만으로 만들어진 한국형발사체가 중형 위성을 싣고 본 발사를 시도한다.

나로호와 한국형발사체 비교

나로호		한국형발사체
2009년, 2011년 실패 2013년 발사 성공	발사목표	2021년(예정)
5,025억원	개발예산	약 1조5,449억원
2단형(액체/고체)	발사체 구성	3단형(액체4기/액체/액체)
러시아 개발 (기술자립도 50%)	엔진기술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 (독자개발)
390명	전문인력	1,000명
발사대 구축, 운영능력 확보	우주센터	발사대 확충, 시험설비 구축
러시아 위주	국제협력	협력 다변화
100kg(고도 300km)	탑재위성 무게	1,500kg(고도 600~800km)
중량 140t · 길이 33.5m 직경 2.9m	제원	중량 300t · 길이 약 50m 직경 약3m

그래픽 권지희

한국형발사체는 길이 49.5미터로 만들어진다. 33.5미터인 나로호보다 16미터 더 길다. 형태도 2단형인 나로호와 달리 3단형이다. 1단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 4개가 장착된다. 이를 합한 총 추력이 300톤이다. 1단으로 우주궤도에 가깝게 접근하면 75톤급 엔진 하나를 단 2단이 또 한 번 추력을 발휘한다. 1단과 달리 연료에 등유인 케로신을 섞어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한다.

마지막 3단은 7톤급 엔진으로 위성을 우주공간의 제 위치에 올려놓는다. 2단 발사체인 나로호는 고도 300킬로미터에 100킬로그램의 위성을 실었다. 3단 발사체로는 고도 600~800킬로미터에 1,500킬로그램의 중형 위성을 실을 수 있다.

위성은 클수록 더 고성능의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 또 고도가 높을수록 지구 대기권 영향을 덜 받아 수명이 길어진다. KSLV-II는 나로호와 나로우주위성에 비해 한층 경제성 높은 우주발사체가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6월 한국형발사체의 '시스템디자인리뷰'를 마칠 예정이다. 시스템디자인리뷰는 전체 발사 시스템을 가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시스템디자인리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예비설계 과정을 거친 뒤에야 실제 설계에 들어간다.

7톤급 발사체 엔진 먼저 만든 후 75톤급 개발

부품별 개발도 속속 진행 중이다.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은 7톤급부터 개발한다. 그 후 발사체를 밀어 올릴 75톤급 발사체 엔진 개발에 들어간다. 엔진은 크게 터보펌프·연소기·가스발생기로 구성된다. 오는 3~5월 7톤급 엔진의 연소기 시제품을 만든다. 터보펌프는 10월에 만들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15~18년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

엔진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정성이나 성능 등의 사전실험을 거쳐야 한다. 나로호에 쓰인 30톤급 엔진은 외국에서 시험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이를 실험할 수 있는 추진기관 시험시설을 만들고 있다. 나로호 성공 직후 상세설계와 계약이 끝나고 토목작업에 들어갔다. 이 시설의 1단계 공사는 2015년 7월에 끝난다. 그 전인 2014년 말부터는 7톤급 엔진의 성능실험이 가능하다.

우리 과학기술의 힘으로 달을 탐사하고 우주정거장 개발에 뛰어들 날도 머지않았다. G

글·박상주 기자

박태학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장

"미지의 문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짜 실력"

75톤급 엔진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알고 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엔진 추력이 높을수록 만들기 어려운데, 75톤급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30톤급 엔진(나로호)을 경험한 뒤 75톤급을 만드는 것은 퀀텀점프(비약적 발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축적된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자신이 있다."

우주 선진국도 외국으로부터 발사체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있나?

"모든 로켓 기술은 독일에서 나왔다. 옛 소련이 이 기술을 전수받았고 경쟁 중이던 미국으로 기술이 넘어갔다. 미국은 이를 발전시켜 발사체를 개발했고, 일본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했다. 우주 선진국도 모두 외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 우리도 시작만 늦었지 우주 선진국의 길을 가고 있다.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기술을 쌓으면 좋지만 우리는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할 입장이다.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축적했다고 인정한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렵나?

"처음 해본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조립, 배관 등 온도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단위 부품을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이 구성될 때까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한국형발사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발사체 엔진 기술의 일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움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우주개발 과정은 무엇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어려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도 분명 생길 것이다. 실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게 한국 과학기술의 본 실력이다."

연구개발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개발 예산은 어떤가?

"2021년까지 총예산이 1조5,449억원 정도 된다. 개발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예산 4,919억원 중 각종 시험시설을 만드는 데만 3,700억원이 소요된다. 2단계에 약 7,000억원, 3단계에 약 3,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 사업도 예산이 나오지 않다 나로호가 성공하고서야 본격 추진됐다.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없는 것이 걱정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나?

"원샷(단번에 성공). 나로호와 달리 한국 과학기술의 총아를 보여주는 일이다. 기술에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검토와 냉철한 지성으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기술을 개발하겠다."

"실패 또 실패 때마다 많은 걸 배웠다"

"러시아 학자들에게 들은 정보로 밤샘 연구… 2만2,000여 쪽 상세설계도 완성"

나로과학위성이 궤도를 성공적으로 돌고 있다. 세 번째 발사, 다섯 번의 시도 만이다. 나로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린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 성공은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기점을 마련했다. 그 본산은 나로우주센터. 수년 동안 나로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200여 명의 과학자가 고군분투한 곳이다. 그 수장인 민경주 센터장을 만났다. 그는 이제까지 밝히지 않았던 나로호의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2년 만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던 민경주(60) 박사는 1991년 우주센터에 발을 들였다. 그 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처음 만들어진 우주센터 창립 구성원 중 한 명이었다. 그로부터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한국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기까지 꼭 22년이 걸렸다.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한 그의 감회는 남다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누구도 한국이 우주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용감하게 우주센터에 뛰어든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오늘날 나로호 발사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으로 볼 때 우주발사체 성공이 늦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의 생각은 다르다. 다른 나라에서는 40~50년 만에 이룬 것을 한국은 나로호 준비 10년 만에 이뤄냈다는 것이 민 센터장의 말이다.

북한과 이란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15번째 우주센터를 지어 11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4개국 우주센터는 아직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의 우주과학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민경주 센터장을 2월 4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났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만 생활하다 1주일에 한 번 있는 연구원 회의차 대전에 올라온 길이었다. 민 센터장은 새벽 7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오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우주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사진·김순덕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이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겪은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

"국내에서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발사체도, 발사대도 모두 첫 경험이다. 발사체에 저압으로 연료를 충전하는 등 복잡한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발사 성공을 기원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어 행복하다."

세 번 만에 성공했다. 시도한 것으로 치면 다섯 번 만이다. 어떤 교훈을 얻었나?

"한 번 만에 성공했다면 다들 원래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우리 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발사에 실패할 때마다 한국 우주개발 사업이 계속 성장한 것으로 봐달라.

우주 발사를 시도하면서 3,000여 쪽에 이르는 설계도를 만들어 발사체 시스템을 완성했다. 또 발사체가 음속을 돌파한 이후 수신되는 압력과 속도, 엔진 밸브의 개방 여부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요소를 계측하고 완벽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익혔다. 이런 기술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최고급 기술이다."

많은 분야 중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뛰어든 이유가 뭔가?

"조금 비장하게 들리겠다(웃음). 국력을 키우기 위해 우주과학에 뛰어들었다.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었다. 그 누구도 우리 후손들만은 이런 비참한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 국력을 단숨에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우주과학이다. 20여 년 만에 한국을 우주선진국으로 발전시켰으니 보람도 크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각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그래서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어떻게 기술을 얻었나?

"나로호와 관련해 공식적인 기술 이전은 없다. 다만 우리 학자들이 전공별로 나뉘 러시아 과학자와 1대1로 만나 친분을 쌓았다. 러시아 학자 중에는 연세가 90이 넘는 분도 있다. 우주개발 분야에서 대선배 학자다.

우리는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로우주센터 식당에서 보드카를 함께 마시며 엄청난 양의 질문을 해댔다. 친해질수록 구체적 답변을 하나씩 내놓았다. 러시아 학자들은 오후 6시면 바로 퇴근했지만 우리 학자들은 귀로 들은 분절된 정보를 기초로 밤을 새워 연구했다. 그렇게 나눈 이야기를 모두 모아 2만2,000여 쪽에 달하는 나로호(KSLV-I) 상세설계도를 얻었다. 러시아에서 받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모두 비공식적이다."

러시아 발사체인 만큼 그 부품도 러시아산이다. 그 수많은 부품은 어떻게 구했나?

"모두 러시아 규격에 맞춰야 했다. 부품은 모두 러시아에서 구해야 했는데 3중고에 봉착했다.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구했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고 또 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가능한 한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품은 대만이나 일본 업체에 맡겼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던 부품도 이제는 모두 국산으로 교체 가능하다."

"미국은 국민 1인당 14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우주개발에 투자한다. 한국은 4,000원 수준이다. 일본도 1만원이 넘고 프랑스는 1만4,000원 수준이다. 우리도 1만원 수준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땅이 넓은 나라는 자국 안에서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럴 만큼 땅이 넓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던데….

"우리의 지리적 형편 때문에 필리핀 해역의 바다 위에서 추적했다. 특별하게 만든 배에 안테나를 달아 올렸다. 파도가 쳐도 배만 움직이고 계측기는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가진 환경적 조건을 극복하는 것도 우주과학기술 개발 과정이었다."

비싼 돈을 주고 러시아 기술을 샀다는 목소리도 있다.

"맞다. 러시아의 기술을 빌렸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단 로켓은 러시아 기술이고, 2단 로켓은 우리 기술이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 보겠나? 나로호에 5,000억원이 들어 비싸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2억 달러는 러시아에 지불했고 3,000억원 정도는 한국기업들에 지급했다. 실제로 연구원의 연구비는 연 100억원 정도로 인건비에 불과하다.

러시아에서 비싸게 샀다고 하는데 우리는 발사체 하드웨어 3기를 받았다. 1기는 아직 발사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체다. 계약 당시 러시아가 오일달러가 없을 때 싸게 사온 것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한 편이다."

한국의 우주과학 투자 실정은 어떤가?

"미국은 국민 1인당 14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우주개발에 투자한다. 한국은 4,000원 수준이다. 일본도 1만원이 넘고 프랑스는 1만4,000원 수준이다. 우리도 1만원 수준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우주개발은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억척스럽고 강단 있는 우리 과학자들을 국민이 믿어준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보여줄 자신이 있다."

한국 우주기술은 인공위성 등 경제적인 목적에 국한돼 있다.

"지금은 발사체 개발 수준으로 경제적 실익이 중요하다. 스페이스셔틀같은 운반체 수준까지 올라야 과학적 목적으로 우주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참여하려면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기다려달라." G

글·박상주 기자

중앙포토

중앙대 융합공학부 실험실에서 박한수(가운데) 의료공학 지도교수가 학생들과 산도 변화를 완화해주는 완충용액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공계 우수 학생에게 넉넉한 지원

장학금부터 취업·창업 지원, 제도 개선까지 각종 지원책 잇달아 시행

이공계를 키워야 나라가 산다. 교육계가 늘 고심하는 명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이 생기면 이공계 쪽에 먼저 별도로 떼어줬다. 이공계 석·박사의 연구지원사업에도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정부가 이공계 지원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요즘 이공계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살피느라 바쁘다. 오는 2월 14일까지 이공계를 위한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학금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대학 학부과정 중 최대 4년, 정규 8학기를 지원한다. 장학생에 선정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학기당 180만원씩 생활비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생으로 성적만 우수하면 된다.

인문사회계 국가우수장학금도 있지만 이공계는 그 지원범위가 훨씬 넓고 재원이 풍부하다.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 9조에 따라 국가는 이공계를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더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수능 성적우수학생 950여 명과 수시입시 우수학생 1,160여 명이 이 장학금의 수혜를 입었다.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있다. 이공계 우수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이다.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해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은 물론 학기당 200만원 내외의 학업장려비까지 지원한다. 해외 장학생에게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국내 100명, 해외 10명, 각 지역 추천 17명을 새로 선정한다. 현재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364명이다. 뛰어난 성적을 낸 이공계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공계를 위한 정부 지원은 단순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개정했다. 이공계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정부의 이공계 관련 지원정책

정책	수혜대상	내용
이공계 국가 우수장학금	국내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자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기당 180만원 생활비
대통령과학장학금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성적자	등록금 전액, 학기당 200만원 학업장려금, 해외 장학생은 연간 5만 달러 장학금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이공계 학위 취득 이후 5년 초과 실업자	국내외 연수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자	전문인력 10명 확보 요건 → 전문인력 5명으로 완화
과학영재 선이수과정 개설	과학영재학교 학생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점 선이수, 3년 만에 대학 졸업 가능
사이버대 이공계 학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	사이버대 이공계 학과 신설로 선취업-후진학 신청자 이공계 유치
이공계 여성 취업박람회	여성 이공계 대학 졸업자	13개 정부 출연 연구원 인사담당자가 직접 대학을 찾아 여성인재 유치

정부는 법안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과거에는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했지만 이런 조건을 폐지했다. 학위 취득 이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법안까지 바꿔가며 이공계 지원에 나선 것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정규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공계 학위자들의 국내외 연수 등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규취업 전까지 실무능력과 연구경력을 배양해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확대돼 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 인력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요건 완화로 고용 창출

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할 때 인적 요건이 '이공계 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였는데, 이를 '5명 이상 확보'로 하향조정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공계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산업이다. 영리 목적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또는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석·박사 이상의 고급 연구인력이 소규모 연구 전문 사업체를 만들어 이 업종에서 활동한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는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조치는 인력과 장비가 취약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줌으로써 관련 업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명 이상 연구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기준과 같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고급 연구를 수행하려는 이공계 전문인력을 위한 배려다.

고등학교 과정서 대학 학점 인정받는 제도 마련

지난 1월 18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 Advanced Placement)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P과정을 이수한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정)에 진학하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만큼 대학 과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어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은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이공계 진로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에도 이공계 특성화 학과가 개설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2013학년도 사이버대학 입학전형을 발표하면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취업-후진학을 돕기 위해 전기전자·정보통신 등의 이공계 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선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특성화 고등학생을 이공계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다. G

글·박상주 기자

한국의 IT는 세계 수위를 달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국의 한 기업이 운영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실에서 연구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융합형 제품으로 부활의 날갯짓

시스템반도체 수출 메모리 제품 추월… 소프트웨어 경쟁력 키우기 과제로

한국 IT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박근혜정부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선언했다. 그 바탕에 '창조과학'이 있다. IT와 과학기술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다. 그간 IT와 관련한 정책이 다양한 곳에서 쏟아져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보기술(IT)산업의 성패는 순식간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조금만 소홀히 대처하면 여지없이 위기를 맞는다. 최근 끝없이 추락하는 일본의 세계적 IT기업 소니가 이를 증명한다. IT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중심의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한국이 느끼는 위기의식도 여기서 비롯한다. 지금이라도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이었다. 수많은 인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과 기술로 전세계 IT시장을 사실상 견인했다. 2007년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IT산업 경쟁력지수에서 세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많은 벤처기업이 거품논란을 일으키며 무너졌다. 한국의 IT 경쟁지수는 2008년 8위, 2009년 16위, 지난해에는 19위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의 숨은 IT경쟁력은 아직 충분하다. 한국의 IT제품 제조기술이 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금에라도 우리가 IT경쟁력을 잘만 가다듬는다면 충분히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한국 IT산업 부활의 가장 긍정적 신호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약진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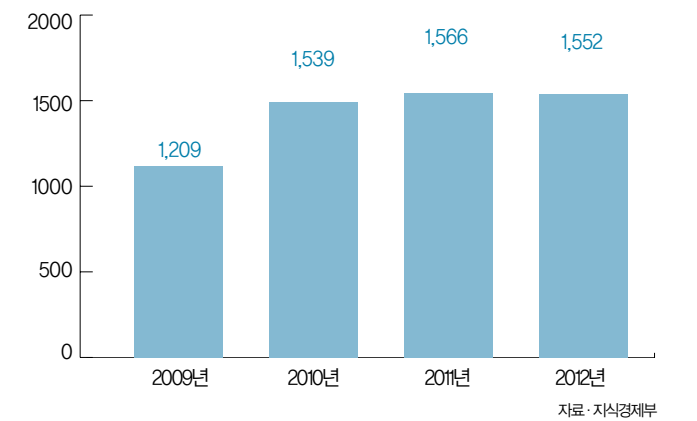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5,300만 대의 모바일 기기를 팔아 전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31.8퍼센트에 달한다. 2위 애플은 26.2퍼센트다. 모바일 산업의 핵심인 스마트폰 판매에서도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다. 2007년 아이폰을 내세우며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했던 애플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다.

애플 주춤하는 사이 스마트폰 세계 1위 굳혀

올해도 한국 모바일 제조업체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A가 1월 31일 내놓은 '2013년 모바일 시장전망'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예측치는 3억2,400만 대다. 지난해 2억1,000만 대에서 1억 대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2위 애플과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플은 지난해 말 큰 기대와 함께 아이폰5를 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4,780만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의 혁신정신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반면 삼성전자의 상황은 다르다. 올해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3 출시를 앞뒀다. 애플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는 기회다. LG전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낸다. SA는 LG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시장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를 넘어섰다. PC와 모바일의 핵심부품인 D램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보여 앞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수요가 늘어 시장전망도 밝다.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비교적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스템반도체 기술도 나날이 발전한다. 지난해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245억 달러로 전년대비 23퍼센트 급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다. 덕분에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메모리반도체 전체 수출액을 추월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IT 수출은 1,552억 달러, 수입은 779억 달러였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73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패널·TV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도 IT 수지가 3.7퍼센트 늘어난 8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 나승식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올해는 세계 IT시장의 회복과 스마트폰·시스템반도체 등 융합형 제품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IT수출이 1,600억 달러를 달성해 8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와 동반 성장해야 성공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한국 IT산업에도 남은 과제는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기르는 일이다. 지난해 IT 수출을 이끈 기기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미래 IT시장을 감안했을 때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한 운영체제(OS)는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다. 지금은 국내 제조업체와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과 그 운영체제인 iOS'를 상대로 연합작전을 펼치지만 미래의 일은 장담할 수 없다.

IT 분야에서는 훌륭한 기기뿐 아니라 기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스마트 시대에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의 성장이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IT 융합산업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G

글·박성민(이코노미스트 기자)

미래 내다보고 지속적 정책 펼치길

눈앞의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우수 인력 이공계 선호 풍조 만들어야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을 전담할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중이다. 과학기술계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펼쳐질 박근혜정부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과학계 전문가 5인에게 미래창조과학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과학기술은 장기사업 5년마다 개편 안 되도록 합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다음 정부에서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5년마다 개편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잦은 부처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그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형 부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ICT 등 성격이 다른 분야와 섞여 거대 부처가 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근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은 회임기간이 긴 장기적 사업이고, 국민이나 정치권의 직접적 관심을 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장관이 누가 오는가에 따라 정책기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또 대부처의 장관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사와 조직 관리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눈앞의 달콤한 열매만 바라보는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발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 유연하고 창의적인 열린 조직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성과는 우리 국민의 삶에 침투해야 한다. 복지 증진 등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정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첨단기술 필요한 때 젊은이들 몰리도록 만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기술을 발 빠르게 따라잡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은 현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말은 더 이상 따라잡을 상대가 없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먼저 개척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창조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폭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0퍼센트를 무역에 의존한다. 물건을 내다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잘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술이다.

예전에는 첨단기술이 아니어도 인건비가 저렴해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도 등 큰 나라들이 밀려오고 있다. 한 발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첨단기술이고 창조다.

유감스러운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공계 기피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이고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로 몰려들어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창조가 가능하다.

그리스나 이스라엘은 정부가 나서서 이공계를 지원한다. 이 두 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없다. 우리 정부도 나서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한영성
한국기술사회장

미래 앞당길 지식생태계 구축 선도하길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 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맡게 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협력이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주기적 통합 지원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패는 미래산업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전주기적 R&D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기존 산학협력의 범위를 산·학·연 협력으로 확대해야 한다. 긴밀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지식과 기술이 막힘 없이 사업화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길 연구 지원과 지식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기 바란다.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인간 중심의 따뜻한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은 지금껏 경제발전의 밑바탕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과학적 발견이나 지식의 축적을 통한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 철학에 근거한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은 바로 사회와 호흡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문제나 재난·재해, 신종 질병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 나아가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인간 중심의 따뜻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다.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바란다면 공생하는 과학기술정책을 펼쳐야 한다.

단기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목표 대비 성과만 따지지 말자.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장기적 철학이 무엇인지 먼저 논했으면 한다.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기초과학부터 전 단계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초과학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선배 과학자들이 꾸준히 기초연구를 계속하고 정부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정보통신산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의 연구 결과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지속적 발전이 필수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초과학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과학으로부터 응용과학이나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전 단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조경제 활성화' 역할을 너무 강조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초과학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정부는 단기적 성과보다 긴 안목으로 R&D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계와 과학계가 힘을 합쳐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G

이철의
한국물리학회장

정리·박기태 기자

'6T' 주역들, 미래산업 선점 전쟁

6가지 첨단 기술산업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 위해 치열한 연구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을 상징하는 6T(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문화콘텐츠기술(CT)·정보기술(IT)·환경공학기술(ET)·우주항공기술(ST)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6T 산업은 성장성이 높고 세계 시장규모가 막대하다. 21세기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이자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분야다.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연구가 이뤄지는 여섯 분야의 대표 연구기관을 소개한다.

중앙포토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한다.

생명공학기술(BT, Biology Technology)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무병장수, 식량문제 해결 기술 개발 앞장

1985년 2월 설립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기관이다.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생체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해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전본원을 비롯해 충북의 오창캠퍼스는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인프라 분야에 특성화한 전문연구시설로 조성해 중부권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전북 정읍분원은 친환경·신기능 생물소재를 개발하는 생물공정분야에 특화한 연구기관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240여 명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은 무병장수와 식량문제 해결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것이다.

KRIBB 오태광 원장은 "생명연이 글로벌 전문 국가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융·복합 변화를 수용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창립 30주년이 되는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연구개발(R&D)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포토

나노기술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나노종합기술원(NNFC)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 구축 마쳐 세계 4위 기술력

나노기술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극미세 소재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첨단기술이다.

정부는 2001년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 11년간 나노기술분야에 무려 2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 나노강국에 올라섰다. 나노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나노종합기술원(NNFC)이 있다. 2004년 대전에서 나노종합팹센터로 설립됐으며, 2013년 1월 1일 이름을 나노종합기술원으로 변경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지속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기술 연구지원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2013년을 '제 2도약의 해'로 선포했다.

나노종합기술원 이귀로 원장은 "2013년에는 대전시와 협력해 '대전시 나노융합R&BD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업화 연계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기술(CT, Culture Technology)

ETRI 차세대콘텐츠연구소

감성화하는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매진

문화콘텐츠기술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첨단 문화예술산업에 필수인 CT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차세대콘텐츠연구소의 역할이다. 199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로 출범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160여 명의 연구원이 컴퓨터그래픽, 영상 및 게임 콘텐츠, 콘텐츠 상호작용, 가상현실, 저작권 보호관리, u-러닝, 디지털홀로그래픽, 디지털시네마 및 사이니지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능화하고 생활에 체화되고 감성화한 콘텐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기반의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3차원 입체영상분야와 스마트 콘텐츠 분야, 그리고 체험형 콘텐츠 분야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도 연구개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디지털시네마'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해 화제가 됐다.

차세대콘텐츠연구소 한동원 소장은 "앞으로는 만지고, 맛보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오감 융합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며 "콘텐츠산업은 다른 산업과 융합, 3D 융합, 융합 콘텐츠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TRI

차세대콘텐츠연구소는 2D와 3D가 변환하는 과정을 연구해 융합 콘텐츠를 창출한다.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미래 유망 과학기술과 지식정보 흐름 예측

정보기술은 정보를 생성·도출·가공·전송·저장하는 모든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IT기술 수준은 SRAM, TFT-LCD, CDMA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유통·분석하고, 슈퍼컴퓨터 등 첨단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정보연구기관이다.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1962년 세워진 유네스코 과학문헌센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전신이다. 국내외 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과학기술자에게 유용한 관련 논문 등 문헌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R&D사업 종합정보 공동활용체제서비스(NTIS)'를 통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연구자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글로벌 신기술 정보 포털 '미리안(Mirian)'을 운영하고, 미래유망기술과 그 흐름을 예측해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미래유망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전략기획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활동도 활발히 전개한다. 다가올 빅 데이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포토

IT기술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필수적 기술이다.

환경공학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술 주력

환경기술·청정기술·에너지기술·해양환경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은 1977년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1980년대 에너지 안보와 국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기술을 개발했다. 1990년대에는 에너지 수급안정과 고효율화 기술,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그리고 2010년대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술이다. 환경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류는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개별 국가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설정하면 새로운 무역규제가 등장하는 등 환경관련 수요도 증대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올해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인도네시아·터키 등과 추진해온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태양열발전, 태양광, 저등급 석탄, 유동층 건조기술 등의 기술 이전과 실증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주호 원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주기 위해 원천기술 이전,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 인력훈련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떠올랐다.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로켓·위성·무인기 말아 우주산업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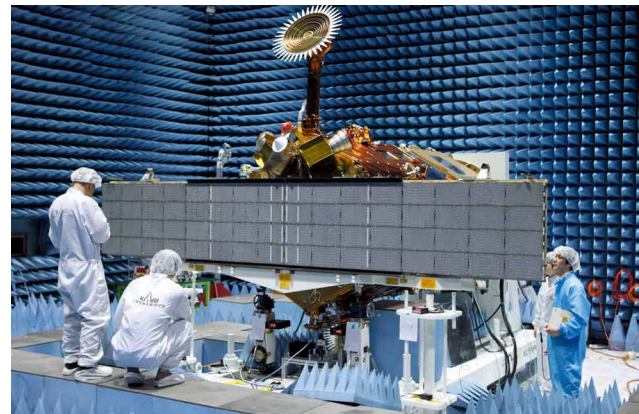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1989년 국가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발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크게 우주발사체 개발, 인공위성 개발, 첨단 항공기 개발 등이 있다. 항공우주과학기술은 전자·반도체·컴퓨터·소재 등 관련 첨단기술을 종합해야 가능하다. 기술개발 결과가 타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종합기술이다.

우주항공기술은 국내의 관련된 기술분야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높아 산업화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을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항우연은 1월31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발사에 성공했다.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100kg급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체인 나로호(KSLV-I)를 이용해 과학기술위성 2호의 발사를 시도했으나 위성궤도 진입 실패를 딛고서다. 인공위성분야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정지궤도복합위성 등의 개발 및 발사, 첨단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는 스마트무인기·중형항공기 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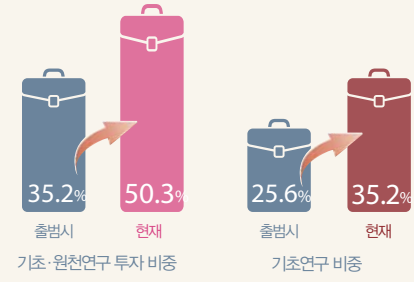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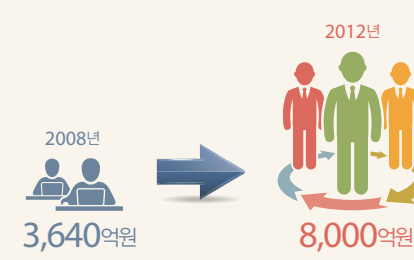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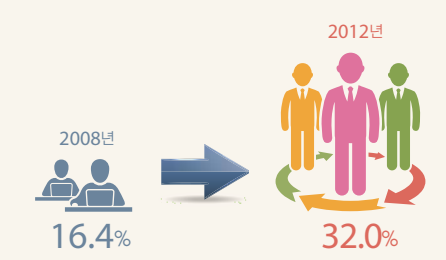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승조 원장은 "2020년까지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막 시작하려는 우주산업에 기업체가 참여해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일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김지연 기자

중앙포토

우주항공기술은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종합기술로 인정받는다.

기획특집 | 과학기술강국의 길 이명박정부 과학기술분야 성과

투자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위 이스라엘 4.40%
2위 대한민국 4.03%
3위 핀란드 3.88%
4위 스웨덴 3.40%
5위 일본 3.26%
6위 덴마크 3.06%

정부 R&D 예산

2008년 11.1조
2012년 1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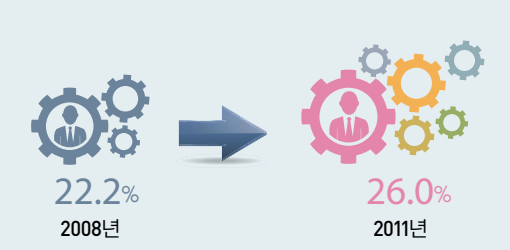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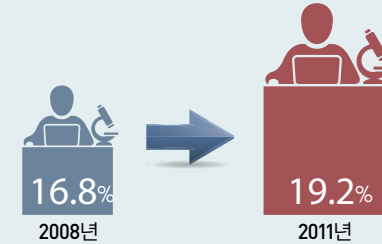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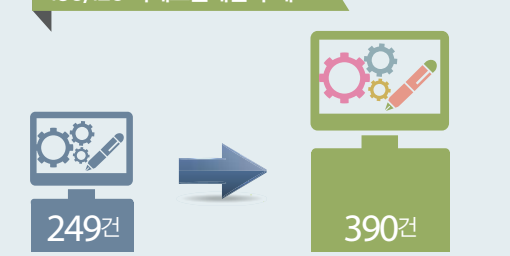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 출범시 35.2% → 현재 50.3%
기초연구 비중: 출범시 25.6% → 현재 35.2%

개인·소규모 기초연구비

2008년 3,640억원 → 2012년 8,000억원

이공계 교수 중 개인·소규모 연구비 수혜 비중

2008년 16.4% → 2012년 32.0%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나이 먹을까봐 떡국 안 먹는다 그랬어요”

고향생각 더 나지만 가족들 배려 큰 힘… “우린 이제 한국사람인 걸요”

태국·베트남·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동남아 3개국이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다. 동남아 며느리 3인방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설 명절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들어봤다.

응웬티창·28·베트남
결혼 5년차·1남·서울 강북구

맘포트라스메이·35·캄보디아
결혼 5년차·1녀·서울 구로구

권낫다몬·44·태국·
결혼 13년차·2남·서울 서대문구

지미연 기자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쇠셨나요?

권낫다몬 “한국에서 열 번째 설입니다. 이제는 한국사람 다됐어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며 보냈어요. 이번 설에는 두 아들과 함께 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아들 녀석들이 제법 잘 도와줍니다. 시댁이 대구인데, 이번에는 형편상 못 내려갔어요. 죄송하다고 연락드렸더니 시부모님께서 오히려 괜찮다며 걱정해주셨어요.”

맘포트라스메이 “저는 이번 설이 다섯 번째예요. 서울 목동에 사시는 시부모님 댁에 가서 떡국·전·잡채 같은 음식을 만들어 함께 어울려 먹었어요. 시댁은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아요. 남편은 누나와 남동생이 있는데, 명절에 함께 모이기는 어려워요. 형님과 도련님 모두 결혼해 명절이면 시댁과 처가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대부분 저희 가족만 시부모님과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함께 윷놀이도 하고 시어머님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윷놀이는 두 팀으로 나누어 하는데 지는 팀이 벌칙으로 밥을 사고는 합니다.”

응웬티창 “한국에 온 지 6년 지났어요. 여섯 번째 설인데, 모두 시부모님과 함께 보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설이면 온 집안이 북적거린답니다. 형님 가족과 시아주버니 가족, 그리고 제 친정언니 가족이 명절만 되면 함께 모이거든요. 올해도 같이 떡국 먹고 집 근처 유원지나 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며느리는 명절 이후 명절증후군을 앓습니다.

권낫다몬 “큰 어려움 없이 보내왔어요. 시댁에 찾아가면 시아버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대해주시는지 감사할 정도예요. 남편 가족 모두 성격이 좋으셔서 제 서투른 실수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저 고마울 뿐이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설을 보내니 명절이면 몸과 마음이 오히려 회복되는 것 같아요.”

맘포트라스메이 “저도 명절증후군을 경험한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만 모이다 보니 평소와 차이가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 오순도순 윷놀이를 하며 대화를 나눠요. 날이 좋으면 가까운 곳으로 나

응웬티창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 세뱃돈을 줍니다"

권낫다몬 태국
"한국 설은 너무 추워 태국처럼 물을 못 뿌려요"

맘포트라스메이 캄보디아
"예쁜 만두 빚어 이제 한국 며느리 다 됐다 칭찬받았어요"

들이를 가서 기분전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응웬티창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다만 요즘에는 설날 같은 명절이면 한국음식 대신 베트남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 보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도 구정 명절이 있어요. 설날이면 새 옷을 입고 맛있는 과자를 먹는 풍습이 있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1년 내내 설날을 손꼽아 기다린 기억이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이전에는 설에 월남쌈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제 덕에 우리 가족 모두 월남쌈을 좋아하게 됐지요. 설날에 가족과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 고향이 덜 그립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설음식을 꼽는다면.

권낫다몬 "동태전입니다. 시어머님이 안 계셔서 한국음식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배웠어요. 동태전은 태국에는 없는 음식이어서 호기심에서 시도해봤어요. 소금간이 된 동태에 후춧가루를 적당히 뿌린 다음 밀가루를 묻힌 계란 옷을 입히지요. 프라이팬 위에 올려 놓고 약한 불로 요리를 시작하면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풍긴답니다. 처음에는 간도 안 맞고 맛도 없어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실패 뒤에는 우리 가족 입맛에 맞는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설에는 하나 부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맘포트라스메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든 명절음식은 만두였습니다. 시어머님께 배웠지요. 시어머님은 매년 새해가 되면 가족을 위해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만두가 없어요. 처음 만드는 음식이어서 긴장했는데, 시어머님이 자상하게 알려주셨지요. 처음에는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아 눈치를 봤는데, 시어머님은 그저 잘 한다며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지금은 시어머님 솜씨 못지않은 예쁜 만두를 빚는답니다. 이번 설에도 시어머님이 제게 '이제는 한국 며느리 다 되었다'며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응웬티창 " 저는 떡국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아 잘 먹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떡국의 맛에 빠지게 됐어요. 저도 시어머님께서 요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사골로 육수를 만들고 쇠고기·계란·김가루·파를 고명으로 얹어요. 간은 간장으로 하고 마늘 다진 것도 넣지요. 시어머님의 음식 비법은 바로 참기름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참기름을 넣어요. 그럼 마술처럼 요리 맛이 바뀌는데 참 신기하답니다."

기억에 남는 설 명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낫다몬 "태국에서는 설을 '쏭크란'이라고 해요. 이날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한 해의 축복을 기원하죠. 축제 같은 하루예요. 그런데 한국의 설은 태국과 달리 겨울에 있어 너무 추운 게 흠이에요. 그래서 태국 설날처럼 물을 못 뿌려요. 한국 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떡국을 먹고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도 하지만 태국에 비하면 조용한 편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태국의 쏭크란은 4월13일인데, 이날이면 물총을 준비해 아이들과 물을 뿌리며 태국식 쏭크란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재미있어 합니다. 엄마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는 기회도 되고요."

맘포트라스메이 "처음 떡국을 먹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떡국 안 먹고 젊게 살까 생각도 했어요. 어머님께서 한국의 재미있는 풍습이라고 설명해주셨지요. 캄보디아에서는 '절에 예쁜 꽃을 가져가 기도를 드리면 나중에 죽어 환생할 때 더 예쁘게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응웬티창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처음으로 설을 맞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서투른 한국말로 '저 떡국 안 먹어, 나이 안 먹어'라고 했지요.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두 그릇을 먹었으니 두 살 더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온 식구가 재미있다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참 저는 시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러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남편이 엄마라고 불러서 저도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시어머님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주위에서는 이런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명절에 고향생각이 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권낫다몬 "태국은 따뜻한 나라지요. 2월 태국 날씨는 한국의 따뜻한 봄 날씨 같아요. 제가 추위에 약한 것도 태국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운 것은 정말 적응하기 어려워요. 한창 추운 겨울에 맞이하는 설날이면 따뜻한 태국이 더욱 그립습니다. 태국은 1년 내내 여름이에요. 명절이 되면 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고향생각이 날 때면 태국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맘포트라스메이 "설날이면 고향생각이 더 나요. 시동생 내외와 형님 내외가 친정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릴 때가 있어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옆집에 살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요. 캄보디아도 설날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답니다. 언젠가는 설날에 고향에 찾아가 꼭 인사를 드린 다음 만두를 해드리고 싶어요."

응웬티창 "베트남에서는 설날이면 꼭 먹는 전통음식이 있어요. 바로 빤쭝(Banh Trung)입니다. 설날이면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베트남에서는 설에 1주일 정도 쉽니다. 그동안 친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설 전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과자를 먹어요.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 세뱃돈을 주시면서 덕담을 하시지요. 한국과 비슷하죠. 이야기하다 보니 고향이 더 그리워지네요." G

정리·박기태 기자

설에 만들어 먹고 싶은 고향 음식

태국 그린카레 닭 요리

"시집온 이후 명절에 태국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에는 태국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린카레 닭 요리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태국음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초록색 카레와 우유를 넣고 만든 요리인데 매콤달콤해요. 여기에 국수를 같이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설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까리 쌋 모안

"캄보디아 음식 중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까리쌋 모안'을 먹고 싶어요. 한국의 카레와 비슷한데 코코넛 크림과 캄보디아 카레인 까리와 쌋 모안(닭고기)을 넣어 요리하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는 설날에 가족과 함께 까리 쌋 모안을 만들어 먹어요."

베트남 월남쌈

"베트남도 구정 명절을 쇠는데 주로 월남쌈을 먹어요. 한국에서도 설에 월남쌈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월남쌈을 좋아하게 됐지요. 설날에 가족과 함께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고향이 덜 그립답니다."

‘레인보 스쿨’서 편입학 진로 지도

2017년까지 5년간 86개 정책과제 진행… 국제결혼 심사 강화하고 다문화방송 추진도

설은 70만 명의 다문화가족에게도 큰 명절이었다. 하지만 아직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가족도 있었다. 남편만 믿고 시집온 새댁이나 한국말이 서투른 아이가 행복한 설을 보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도우미로 나선 이유다. 정부는 2017년을 목표로 86개 정책과제를 준비했다.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녀세대의 사회 적응이 주요 과제다. 정부가 공들여 준비한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2012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모두 2만 9,762명. 전체 결혼 10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국제결혼은 2000년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성비가 불균형해진 데다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자 장가갈 길이 막막해진 농촌총각이 선택한 대안이 국제결혼이었다. 빠르게 상승곡선을 그려온 국제결혼의 결과 2012년 기준 약 70만 명의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살아간다.

새로운 가족이 늘자 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 다른 문화권 출신 가족의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1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운영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86개 정책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박선옥 서기관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과 자녀세대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찾아온 결혼이민자는 2012년 말 현재 22만1,000명이다. 이중 중국(한국계 포함)이 약 1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 등에서 한국으로 결혼이민한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이지만 불협화음이 계속 들려왔다. 결혼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해 사기를 당하는 일도 늘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 절차를 개선하고 나섰다.

10개 언어 다누리콜센터 24시간 운영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 양쪽 배우자를 개별 인터뷰해 혼인의 진정성, 혼인 경력, 건강상태, 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을 정착화하고 나섰다.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국제결혼 피해자 상담센터 설치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사히 백년가약을 맺고 한국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 많다. 언어와 문화는 다문화가족을 힘들게 한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한국생활 안내와 생활고충 상담을 위해 10개 언어로 통화할 수 있는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한다. 10개 언어로 제작되는 다국어 정보잡지 〈Rainbow+(레인보 플러스)〉도 제작 배포한다. 만에 하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결혼이민자 상당수는 대학 졸업생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다. 취업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더욱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국에서의 경력과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에 나섰다. 좋은 예가 지난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취업한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의료 관련 인력이다. 모두 2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새해를 맞아 다문화가족이 대구 중구청과 지역 여성단체가 마련한 ‘고향음식 만들기’ 행사에서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고 있다.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늘리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턴 제도를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인턴은 월 최대 60만원까지 6개월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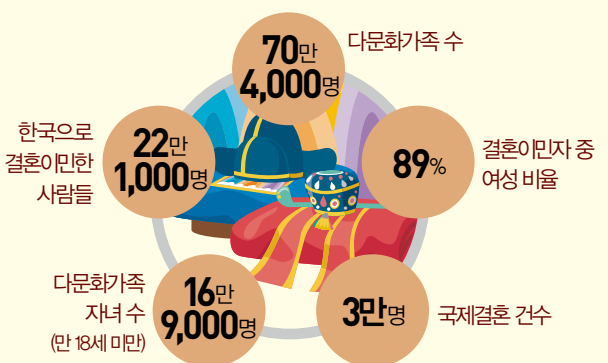
한국어·기초학력 도울 글로벌 선도학교 150곳 운영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에게 출산은 한없는 기쁨이자 막연한 불안의 시작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다문화가족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2012년 26곳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24곳을 추가해 모두 5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을 위해서는 ‘레인보 스쿨(Rainbow School)’을 준비했다. 9~24세의 외국 출신 청소년이 대상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편입학 진로를 지도해준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50곳의 글로벌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군 입대가 늘며 불안해 하는 부모가 있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 및 일반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시작했다. 다문화가족 출신 장병 차별행위 금지와 고충 우선 처리를 명문화했고, 이슬람교·힌두교 등 소수종교자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 G

글·조용탁 기자

다누리콜센터 1577-5432, **다누리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만리타향 설움 세배 배우느라 느낄 시간 읍써요~”

전국 곳곳 특별한 설 잔치

1 전남 구례군에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설을 맞아 여성문화회관 앞 정자에서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 설을 맞아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참가한 여성들은 정성껏 만든 모국 설음식을 자랑했다.

3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을 포함한 90여 명의 학생이 충남 공주에 위치한 도령서당에서 전통 인사법을 배우고 있다.

대구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설맞이 한복체험’이 열렸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열심히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또깍 또깍.’ 도마 위에 놓인 홍당무를 써는 소리가 경쾌하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조이스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다듬었다. 떡국 재료가 어느 정도 모이자 인도네시아에서 온 옥타씨가 국물 맛을 봤다. 고개를 끄덕이자 여기저기서 미소가 피어났다.

2월 6일 오후 2시 전남 구례군 여성문화회관 1층에서 색다른 잔치가 벌어졌다. 설을 앞두고 구례군에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데 모였다.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모처럼 모인 이들은 우리의 전통 떡국을 끓여 먹으며 우리와 똑같이 명절을 즐겼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중국 등 출신국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서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주여성들이었기에 명절을 앞두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특별했다. 떡국을 먹은 다음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이들은 여성회관 앞 정자에서 윷놀이를 하며 여흥을 즐겼다.

한국에는 약 70만 명의 다문화가족이 산다. 2월 10일 설을 맞아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잔치음식을 만들고 민속놀이를 즐겼다. 평소 한국에서의 삶이 평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결혼이주민들은 가족과 친구를 떠나왔다. 언어와 음식,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다.

설을 맞아 잔치가 벌어진 전국 곳곳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하얀 치아를 보이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명절을 맞아 그간 마음속에 쌓인 설움을 훨훨 날려 보내는 듯했다. 설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다문화가족의 잔치를 소개한다.

글·조용탁 기자

다문화가 우리 사회 도약의 열쇠

획일화된 사고는 성장 가로막는 장애… 다름 받아들여야 성숙한 사회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살색' 크레파스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살구색이라고 불리는 그 색상은 늘 제일 먼저 닳아 나머지 크레파스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주범이었다. 인물 표현이 많은 초등학생들은 모든 인물의 피부색을 전부 '살색'으로 동일하게 칠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피부색이나 짝꿍의 피부색도 '살색'이라는 그 색상과 달랐다. 왜 그때는 모든 사람의 피부색을 한 가지 색으로 칠했는지 모르겠다.

이 살색 크레파스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결한 이후 사라졌다. 그래서 살색이 사라진 지금 아이들의 크레파스는 고르게 닳을까? 혹시 아이들이 여전히 모든 사람의 얼굴을 살구색 크레파스로 칠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진정한 평등은 살구색 일색인 사람들만 등장하는 그림이 아니다. 흰색·노란색·검은색 크레파스를 고르게 사용해야 그려지는 사람들이 어울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창의성이 좌우

인물그림에 크레파스의 다양한 색을 사용하게 하려면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외모, 다른 언어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거대한 조직 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는 구성원일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새로운것을 접할 때마다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앞세운다. 그래서 나와 이어질 수 있는 학연·지연 등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물론 지난날의 한국사회는 전체의 일원으로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통일된 지침으로 움직일 때 더 효율적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이런 집단적 동류의식이 우리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때로는 그런 목표와 지향을 국가정책으로 의도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에도 그러할까? 미래사회는 무엇보다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독창적 디자인, 고객의 잠재된 욕구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대중이 아닌 소수를 위한 다양한 제품 등은 모두 창의성의 소산이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열쇠다. 서로 같음을 찾기보다 서로 다름을 찾아내려 노력할 때, 그리고 그 다름에서 불편함이 아닌 부러움을 느낄 때 비로소 다문화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는 시장은 이미 획일화한 산업의 소멸을 선언한 지 오래다. 보수적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정부의 정책조차 모든 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정책 대신 각각의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던가? 이런 창의적 사회에서 획일화한 사고방식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다면 획일화한 조건 아래 같음을 지향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던 한국사회는 어떻게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다문화'에 있다.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여겨졌던 가족 내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

내 가까이에서 내 삶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가치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같음을 찾기보다 서로 다름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다름에서 불편함이 아닌 부러움을 느낄 때 비로소 다문화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이가 나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다름을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의 크레파스는 모든 색상이 고르게 닳을 것이다. G

글·고선주(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안전입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 “철도는 문화의 플랫폼, 철길은 문화벨트로 바꾸는 사업 펼쳐”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철도가 문화의 옷을 입었다. 코레일은 교통수단만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에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간이역을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다양한 관광열차도 준비했다. 수준 높은 관광상품 개발을 준비하는 코레일의 정창영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창영
1954년 대구 출생. 성균관대·모스크바국립대 졸업. 감사원 공보담당관, 감사원 사무총장 역임.

이번 설에도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다녀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설 연휴기간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설 특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했습니다. KTX를 지난해보다 26.2퍼센트 늘리는 등 임시열차도 추가로 편성했지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귀성전쟁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모님들을 고려해 역귀성 KTX열차 운임을 30퍼센트 할인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습니다.

철도가 빠르고 안전해서 이겠지요?
박근혜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철도는 대량수송 교통수단으로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철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철도입니다.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업그레이드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겠습니까?
지난해 9월 철도운행 안전성 검증 국제공인기관인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사로부터 3개월간의 진단을 받은 결과 코레일은 국제 사례에 부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제철도연맹(UIC)이 발표한 경쟁력수준에서 코레일은 ‘안전성’과 ‘KTX 정시운행율’ 부문에서 세계 1위, 12월에는 국제철도연맹(UIC)으로부터 이노베이션 어워드 안전분야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철도서비스가 바뀌었다는 평가인데요.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감동을 주는 서비스, 문화의 플랫폼이지요. 그동안 철도는 안전한 이동과 산업화의 기반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왔고, 이제는 친환경과 관광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지금까지 철도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철도역사가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는 ‘문화의 플랫폼’으로, 철길은 문화를 실어 나르는 ‘문화벨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시에 철도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를 접목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산역을 비롯한 주요 역에서는 코레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펼치고, 간이역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06년부터 무인 간이역이 된 고모역에는 문화센터와 갤러리를 조성하여 지역문화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고, 직지사역에는 세계철도 미니박물관을 건립하고, 불교테마의 성지로 육성하는 등 무인간이역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음과 낭만의 추억이 깃든 경춘선에는 음악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연장을 세워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주말엔 운전대를 놓자”라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지요?
철도 관광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여행문화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진정한 휴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기껏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고는 오는 동안 차가 막혀 피로가 쌓이지요. 하지만 승용차를 두고 기차를 이용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과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풍경이 보이고, 가족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기관, 광역지자체, 공기업이 손을 잡는 이례적인 행사가 있었는데요.
백두대간의 비경을 품고 있는 중부내륙 명소를 관광전용열차로 찾아갈 수 있도록 코레일,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가 중부내륙 관광벨트 구축 공동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중부내륙철도를 명품 철도 관광벨트로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중부내륙관광철도는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을 연계해 단양, 봉화, 민둥산, 영월 등 중부내륙 명소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교통이 불편해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한반도의 마지막 비경을 선보입니다. 지역경제와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의 관광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 철도가 관광지를 찾아가는 이동수단이었다면, 중부내륙 관광벨트는 이동 그 자체가 체험과 관광이 되는 신개념 관광상품입니다. JR관광열차 등 세계적인 명품 관광열차를 벤치마킹하여 백두대간 순환 관광열차와 협곡 관광열차를 만들고 있지요. 타기만 해도 즐거운, 평생 한번은 꼭 타야만 하는 명품 기차여행이 될 것입니다.

코레일은 백두대간의 비경이 담긴 중부내륙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열차를 준비중이다.

최근 코레일의 경영성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데요.
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하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우리 철도요금은 철도선진국인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30~80퍼센트 저렴하고, 국제철도연맹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정시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철도선진화계획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꾸준히 감소시켜 왔으며, 2012년에도 가결산 결과 전년대비 1,383억 적자를 줄였습니다. 또한 ITX-청춘 개통, KTX 수혜지역 확대, 해외사업 등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3년도는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G

글·박기태 기자

지난 1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스페셜올림픽 스노보딩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함께 꿈꾸는 희망, 행복한 세상의 시작"

"K-팝·한류 어우러진 문화올림픽"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2월 5일 막을 내렸다. 많은 국민과 국내외 유명인사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스포츠 행사보다 큰 감동을 주었다.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자리였다. 나아가 K-팝부터 클래식·전통문화까지 우리나라의 풍성한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올림픽이기도 했다.

'히어로(Hero·영웅)'라는노래에 맞춰 '피겨 여왕' 김연아와 '피겨 전설' 미셸 콴이 펼친 합동 아이스쇼는 폐막식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갖가지 감동과 화제를 낳았던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2월 5일 오후 7시 강원도 평창군 용평돔에서 막을 내렸다.

이날 폐막식에는 세계 각국의 지적장애인 선수들과 K-팝 스타, 자원봉사자, 관객들이 함께했다. 지적장애인 8명으로 구성된 소리샘벨콰키어팀의 핸드벨 연주로 시작된 폐막식에서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환송사에 이어 팀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 위원장이 폐회선언을 했다.

최광식 장관은 환송사를 통해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은 관객들의 추위를 녹였고, 선수를 향한 관객들의 박수와 격려는 선수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다"며 "이번 대회는 함께 꾸는 희망의 경험이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김연아와 미셸 콴의 합동 아이스쇼가 끝난 후에는 대회 참가자였던 지적장애 피겨스케이팅 선수 20명이 플래시몹 형태의 아이스쇼를 펼쳐 보였다. 이어 걸 그룹 원더걸스와 f(x) 등 K-팝 스타들이 폐막식 대미를 장식했다.

지적장애인 선수 20명 플래시몹 아이스쇼

슈라이버 위원장은 폐회선언에서 평창스페셜올림픽을 "최고의 대회"로 평가했다. SOI의 전략기획수석인 피터 월러씨는 "모든 부문에서 역대 최고 대회"라고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월러씨는 "평창대회는 기획·조정·무대준비·홍보가 정말 모범적이었으며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와 열정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를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이어 2년 뒤인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 스페셜올림픽이 열린다.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동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가장 방대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졌으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 역시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번 대회는 동계대회로는 역대 최대인 106개국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경기가 열린 7일 동안 하루 평균 3만 명씩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이 경기장을 채웠다.

또한 이번 대회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묶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스페셜올림픽으로 호평받았다. 지적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 정상회담인 글로벌개발서밋과 세계청소년회담 등 국제회의가 열린 것도 이번 대회가 처음이었다. 대회 슬로건인 '함께하는 도전(TOGETHER WE CAN)' 정신에 따라 후진국 7개 선수단을 초청하는 스페셜핸즈프로그램,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타들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 등도 곁들여졌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폐막식 하이라이트는 김연아와 미셸 콴의 합동공연이 장식했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기간에 미디어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유채림(중앙대 신문방송학과 2년)씨는 "평창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선수들을 가까이 지켜보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선수와 가족, 그리고 모든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올림픽을 추구해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했다. 먼저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대회 개막에 앞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박4일간의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스페셜올림픽 기간에는 매일 저녁 7시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특색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국립발레단의 발레, 이은결의 마술공연 등이 끝날 때마다 각국 참가자들은 '브라보'를 외쳤다. 특히 지적장애인 발레리나 백지윤 양은 누구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흉내내기 어려운 완벽한 대회" "한국 매력에 푹 빠졌다"

2017년 동계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하는 오스트리아의 헤인즐리 선수단장은 "평창스페셜올림픽은 흉내내기 어려운 완벽한 대회"라고 평가했다.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의 군터 지젤 기자는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에 한국의 미와 따뜻함을 전해준 특별한 올림픽이었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감탄했다.

최광식 장관은 "이번 평창스페셜올림픽은 전세계 지적장애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기회이자 각종 공연·전시·학술대회 등 부대행사가 풍성한 문화올림픽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또한 선수와 선수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였다. 이번 대회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이번 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 '함께하는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적장애인과 그들을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온 가족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누가 이 화상소녀를 모르시나요?"

美 참전용사 리처드 캐드월러더, '치료해준 12세 소녀 찾기' 요청

"60년 전의 소중한 인연을 꼭 찾아주세요." 6·25전쟁 참전용사인 미국인 리처드 캐드월러더(82)씨가 당시 자신의 도움으로 화상을 치료한 한국인 소녀를 찾고 있어 훈훈한 화제를 낳고 있다. 캐드월러더씨는 최근 이 사연을 담은 편지를 국가보훈처에 보내 이 소녀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여 이 소녀 찾기와 함께 '60년 전 한국과 인연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누가 이 소녀를 모르시나요?" 은퇴한 한 미군 참전용사가 6·25전쟁 직후 화상치료를 도왔던 한국소녀를 찾아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화제다. 60년 만에 옛 인연을 찾아나선 미국인 리처드 캐드월러더씨가 그 주인공이다. 캐드월러더씨는 1953년 5월부터 1년간 경기도 수원 미 공군기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다.

혹한의 어느 겨울 밤, 한 한국인 여성이 열두 살 정도 돼 보이는 딸을 데리고 캐드월러더씨가 지내던 부대 막사를 찾아왔다. 인근 마을에 살던 모녀는 집에서 불을 피우다 휘발유통이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소녀는 얼굴과 어깨·허리까지 온몸에 약 3도 화상을 입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낯선 미군병사에게 "딸아이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니 치료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캐드월러더씨는 "당시 이웃 시골사람들이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검정 타르 같은 것을 발라줘 세균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미군부대 측에서는 일단 응급처치를 했다. 그 후 모녀는 치료를 위해 매주 한 차례 부대를 찾아왔지만 얼굴 등 전신의 화상 흉터와 감염 부위를 치료하기에는 약품과 의료진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 육군 이동외과병원(MASH) 소속 헬기가 부대에 도착했다. 캐드월러더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소녀를 부산의 미군병원 화상병동으로 보내 치료받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2시간 뒤 이륙할 때까지 소녀를 데려오라"는 답변을 들은 그는 통역과 함께 지프를 타고 칠흑 같은 밤길을 40여 분 달려 수소문 끝에 소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겁에 질린 모녀를 설득해 가까스로 이륙시간에 맞춰 헬기에 태울 수 있었다"며 "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 한 여인의 모정에 큰 존경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개월쯤 뒤 캐드월러더씨는 다른 부대로 전근명령을 받았다. 귀국을 준비 중이던 그는 영내를 거닐다 화상치료 후 미군 트럭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와 뜻하지 않게 얼굴을 마주쳤다. 그는 "소녀는 환한 표정으로 차창을 두드리더니 완치된 얼굴과 목을 가리켰다"고 말했다.

그는 1954년 전역 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그 소녀를 잊지 못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985년 그의 딸이 공교롭게 주한미군에 배속된 남편을 따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백방으로 모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답답했던 캐드월러더씨는 최근 보훈처에 한국인 소녀를 찾는다는 사연의 영상편지〈53쪽 참조〉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보훈처는 화상소녀를 찾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소녀를 찾으면 그를 초청해 재회를 주선할 예정이다. 화상소녀 관련 제보는 보훈처 통합 콜센터(1577-0606)로 하면 된다.

글·김지연 기자

국가보훈처 '60년 전 한국과 인연 찾기' 캠페인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인연을 재조명한다. 화상소녀 찾기 캠페인을 계기로 미국·영국·캐나다 등 21개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와 함께 '60년 전 한국과 인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21개 참전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는 3월 말까지 해외 각지에서 참전용사들의 사연을 접수한다.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와 국군에게 도움을 받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사연은 국가보훈처 통합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보훈처는 국내외 접수상황을 정리해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소중한 인연을 찾아서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7월 정전 60주년 기념일 기간에 대규모 상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처드 캐드월러더씨의 편지

멋진 여인으로 자랐을 나의 영웅, 꼭 찾아주세요!

저는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에 복무했습니다. 1953년 수원 공군기지 K-13 제8통신중대에 배속된 저는 서해 끝자락 외진 곳에 위치한 소규모의 미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수원 서쪽에 위치한 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화성 매향리에 속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딸(당시 약 12세)과 함께 막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녀는 막사에서 5마일(8km) 떨어진 마을에서 걸어왔더군요. 딸은 집에서 불을 피우다 휘발유통이 터지는 바람에 턱에서부터 허리까지 신체 전면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웃 주민이 검정 타르 같은 물질을 화상부위에 바르는 바람에 감염까지 돼있었죠. 신속히 치료받지 못하면 감염으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 우리 기지를 방문한 미군 이동외과병원(MASH) 부대 지휘관께 소녀의 치료를 부탁했고, 소녀를 헬리콥터에 태워 부산에 있는 군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치료받은 후 기적처럼 상태가 좋아진 소녀를 잠깐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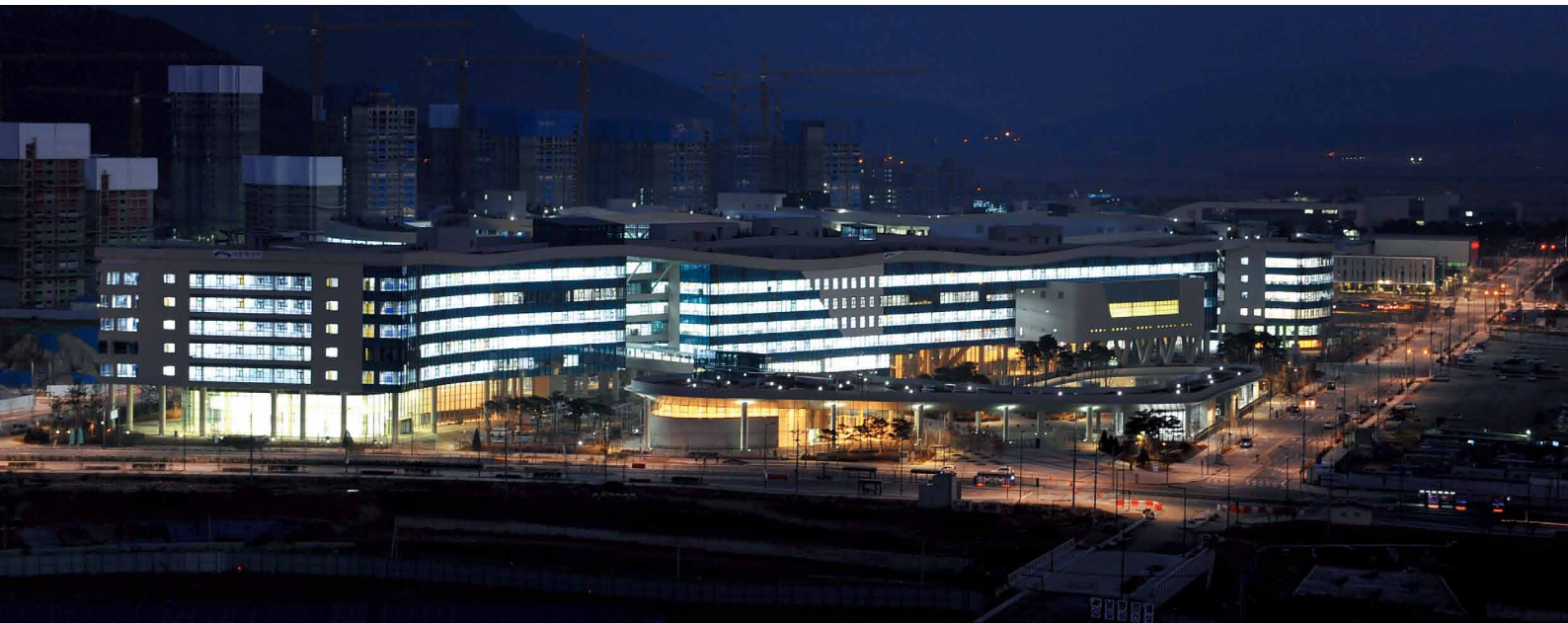
저는 그 한국인 여성이 딸에게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을 항상 기억해왔습니다. 놀라운 용기를 지닌 그 어린 한국인 소녀는 믿을 수 없는 고통과 무서운 불확실성, 그리고 극도의 고난을 눈물 한 방울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냈습니다. 제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그 소녀입니다. 그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게는 영광일 것입니다. 분명 멋진 여인으로 자랐을 그 한국인 소녀를 찾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드림

캐드월러더씨의 딸(왼쪽)과 한국전쟁 당시 캐드월러더씨 통역을 맡았던 에이스씨.

국가보훈처

6·25전쟁 당시 미 참전용사였던 캐드월러더씨.

중앙포토

2월 안에 정부세종청사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차 부지가 확장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비좁은 주차공간 2월 중 500대 늘려

상반기 내 첫마을아파트에 시립병원 건립… 출퇴근 시간 간선급행버스체계 1일 6회 추가 운행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현재 6개 부처 약 5,500명이다. 정부청사 이전 초기 이들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3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로 이뤄진 주거·근무환경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청사 근무 한 달 동안 공무원들이 겪은 고충을 감안해 올 상반기 내에 세종시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총리실 등 6개 부처 5,500여 명 공무원의 생활이 나아지게 됐다.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은 출퇴근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이들의 불편을 덜어줄 3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로 이뤄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세종청사 주거환경개선 ▶청사 내 근무환경 개선 ▶불편사항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상반기 안에 세종시 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교통과 병원·편의시설 등 세종청사 주변환경을 개선해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원활한 통근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1대 증편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6회 추가 운행이 가능해진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 부지 확장도 2월 중에 이뤄진다. 청사 인근에 새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추가로 500대의 주차공간이 늘어난다.

청사 내에 '종합후생매장' 2월 중 오픈

통근·셔틀버스의 운행노선과 배차간격은 사용자 편의에 맞추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수도권 16개 노선에서 서울과 세종청사를 잇는 57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대전·공주권 통근버스와 오송역 셔틀버스는 총 35대가 운영 중이다. 세종시와 충북, 대전 지역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시내버스의 지역 간 환승체계도 마련한다. 공무원들의 건강을 책임질 시립병원은 올 상반기 내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시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청사 인근에도 중·대형병원을 조기 유치하는 방안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서점·인쇄소·세탁소·약국 등의 편의시설을 청사 내에 입점시킨 '종합후생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청사 인근에 마트와 식당을 입점시키고 구내식당의 메뉴를 훨씬 다양화했다.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집은 수용인원을 500여 명으로 확대했다. 늘어나는 수용인원에 맞춰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스쿨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문제가 됐던 청사 내 시설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1월 말부터 4만1,800여 개의 스프링클러와 배관·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세종청사, 이렇게 바뀝니다

분야		추진 과제
주거환경	교통편의 제고	• 출퇴근시간 BRT 운영 확대 • 광역교통협의회 운영
	의료시설 확충	시립병원, 중·대형병원 유치
	편의시설 확충	문화시설 유치 추진
근무환경	통근버스 편의 제고	운영상황 모니터링, 노선 조정
	구내식당 개선	메뉴 다양화
	후생매장 운영	종합매장 영업개시
	주차공간 확대	청사 인근 주차장 확보(500대)
	어린이집 운영 개선	수용인원 확대, 놀이시설 확충
	실내공기 정화	근무시간 중 공기정화 실시
	소방시설 점검	스프링클러·배관·전기·케이블 점검
불편사항	불편사항 접수·처리	'불편사항접수센터' 설치
	입주기관 모니터링	입주부처 합동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직원 상주하며 불편사항 접수

또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공기정화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새 청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새벽에도 공기정화작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미 1월 14일부터 불편사항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청사 4개 구내식당 근처에 마련된 접수센터에 행정안전부 직원이 상주하며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홈페이지 접수창구도 함께 개설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중이다. G

글·김슬기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홈페이지 www.chungsa.go.kr

이강옥 정부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장

"국정 전념하게 안정된 여건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종시 주거·근무환경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말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12개 기관 5,500여 명이 1차로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종시나 청사의 인프라가 부족해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불편은 신규 청사 입주에 따른 애로도 있지만 세종권 내 주거시설과 병원·마트·식당 등 편의시설 부족에 기인한 고충도 상당하죠. 행복청과 세종시 등 담당기관들이 협심해 이주 공무원들의 생활부터 근무여건 불편까지 신속히 찾아내 조치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접한 소감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를 개선대책에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이주 공무원들의 생생한 고충을 듣기 위해 매일 점심시간 청사 내 4개 구내식당에 직원을 상주시켜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청사 주변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청사 내 의무실·종합매장 등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청사의 '새집증후군 해소'에 관한 요청이 많았는데요. 이에 청사 주변의 주거·근무여건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건설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구축 전까지는 청사관리소에서 의무실·종합매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가려 합니다."

대책 대부분이 2월 중 혹은 상반기 내 추진인데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시나요?

"올해 말까지 12개 기관의 이전이 예정된 만큼 범 정부적으로 합심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근무와 주거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모든 고충을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밤낮으로 뛰면서 이주 공무원들이 더욱 안정된 여건에서 국정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우선 주기적인 공기정화 작업을 비롯해 통근버스 배차를 수시로 조정하고 구내식당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세탁소·항공사·서점 등 종합후생매장을 운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이 이달에 우선 마무리되면 공무원들의 체감생활 수준도 나아지리라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편사항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세종청사의 많은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바로 회신해 드렸죠. 앞으로도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창구와 청사관리소 사무실을 통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세종청사 입주 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운치있게 모여 있는 황산마을에서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기웃거리며 걷는 재미가 있다.

거창 황산마을

구불대는 흙담 따라 비움과 열림 순례

거창 황산마을은 기와집 50여 채가 운치있게 모여 앉은 마을이다. 옛 모습 그대로인 기와집 사이로 흙담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흙담을 따라 걷는 산책길은 한결 여유롭다.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자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즈넉한 시골의 정취를 만끽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기에 그만인 황산마을을 간다.

덕유산 자락에 자리잡은 고장 거창. 잘생긴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이 있다. 황산마을이다. 이 마을은 거창 신씨 집성촌이다. 조선 연산군 시절 신(愼)씨 일가가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만들어졌다. 마을에는 100~200년 전 지은 한옥 50여 채가 지금도 운치 있게 늘어서 있다. 지금도 마을 주민 대부분은 신씨다. 마을을 거닐며 만난 대문에는 대부분 신씨 문패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입구에 서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여행객을 반긴다. 수령 600년을 훌쩍 넘긴 나무다. 마을이 형성될 당시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앞으로는 맑은 시내가 흘러간다. 마을은 이 시내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나뉜다. 시내 동쪽은 동녘이라고 부르고, 서쪽은 큰땀이라 부른다. 한옥이 모여 있는 마을은 큰땀이다.

뜨끈한 구들에 뉘었던 몸 솜처럼 가벼워

큰땀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양반마을임을 알게 해주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난다. 황산마을의 한옥은 대부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은 것들이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지방 반가의 건축양식을 잘 드러낸다.

황산2구마을 담장에서는 손을 활짝 내민 아이인형과 갖가지 꽃이 그려진 예쁜 벽화를 만날 수 있다.

한옥도 멋진 풍미를 자랑하지만 황산마을의 자랑은 오히려 흙담이다. 황산마을의 흙담은 아랫단에는 커다란 자연석을, 윗단에는 황토와 돌을 섞어 토석담을 쌓았다.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서다. 이 흙담은 2006년 등록문화재 259호로 지정됐다. 황산마을에는 1~2킬로미터 길이의 토담이 600여 년 전 양식 그대로 남아 있어 문화재로 높게 평가받는다.

기와집 사이로 흙담길이 구불거리며 흘러가는 모습이 호젓하다. 황산마을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 골목 저 골목 낮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걷다 보면 발걸음이 절로 느려진다. 담장 너머로는 기와지붕과 장독, 적막하게 서 있는 감나무가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담장 너머로 집과 마당이 훤히 바라보인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고택이 궁금하면 들어가 구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야박한 도시와 달리 대부분의 집이 낮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는다.

문풍지를 바른 겯문과 툇마루, 햇볕이 잘 드는 마당, 항아리 등 우리네 전통가옥에서는 비움과 열림의 미학, 넉넉한 인심의 향기가 배어 나온다. 푸근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

황산마을을 찾았다면 하룻밤쯤 묵기를 추천한다. 이 마을에서는 민박이 가능하다. 민박집이 10여 가구쯤 된다. 개중에는 아직도 장작불을 들이는 방을 가진 집도 있다. 밤이면 은은한 문살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든다. 소쩍새 우는 소리와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소리가 방을 가득 채운다. 대숲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천천히 거닐어 본다. 이내 가슴 속을 파고드는 평화로움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아침에는 되도록 일찍 일어나기를 권한다. 새벽안개가 마을을 자욱하게 감싸 안은 황홀경을 만날 수 있다. 밤새 눈이 내려

햇볕이 잘 드는 황산마을의 한옥마당에 서면 고즈넉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앉은 한옥 기와의 선이 예쁘다. 자기도 모르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뜨끈한 구들에 뉘었던 몸은 솜처럼 가볍다.

황산마을의 멋스런 담장길만큼이나 예쁜 벽화를 만날 기회도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황산2구마을 담장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다. 황산2구마을에 들어서자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와 명승지인 수승대의 수려한 경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발길 가는 대로 벽화를 따라 이 골목 저 골목을 걷다 보면 벽에 그려진 나비와 잠자리, 주인 대신 집을 지키는 강아지, 담을 부수고 밖으로 튀쳐나온 황소,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사신도를 만날 수 있다. 담장 위에는 손짓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황산마을은 고즈넉한 시골의 정취를 만끽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거창에서는 수승대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손꼽는 명소이자 덕유산이 간직한 절경 중의 절경이다. 수승대를 만나기 전 황산마을 앞에 자리잡은 구연서원의 관수루(觀水樓)가 눈에 들어온다. 관수루는 요수 신권, 석곡 성팽년, 황고 신수이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림이 세운 구연서원의 문루다. 영조 16년(1740) 건립했다.

'관수'란 〈맹자〉에서 언급한 "물을 보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의 흐름을 봐야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군자가 학문을 깨우치는 방법을 뜻한다. 관수루를 지나면 거북모양의 특이한 바위가 나타난다. 수승대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갈천이 위천으로 모여 구연(龜淵)을 만들면서 빚어놓은 거북모양의 커다란 천연바위 대(臺)다. 대의 높이는 약 10미터, 넓이는 50평방미터에 이르는데 생긴 모습이 꼭 거북을 닮았다. 수승대라는 이름에 얽힌 내력 또한 재미있다.

거창이 숨겨놓은 덕유산 비경 '수승대'

거창은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였다. 국력이 쇠약해진 백제가 신라로 가던 사신을 전별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했다"고 해서 근심 수(愁), 보낼 송(送)자를 써서 수송대(愁送臺)라 칭했다.

조선 중종 때는 신권이 은거하면서 구연서당을 짓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신권은 바위의 모양이 거북과 같다 하여 암구대(岩龜臺)라고 불렀고 경내를 구연동(龜淵洞)이라 했다.

수승대라는 이름은 1543년 퇴계 이황이 유람차 마리면 영승리에 머무르면서 생겼다. 이름의 내력을 들은 이황은 아름다운 경치에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음이 비슷한 수승대(搜勝臺)로 고칠 것을 권하는 사율시(四律詩)를 보냈다. 신권 선생이 이를 따르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수승대의 명물은 계곡 한가운데 자리한 거북바위다. 머리와 등짝이 꼭 거북을 닮았다. 바위에는 선현들이 새겨 넣은 시구가 즐비하다. 이황 선생이 남긴 옛 글 한편도 남아 있다.

"수송을 수승이라 새롭게 이름하노니 / 봄을 만난 경치 더욱 아름답구나 / 먼 산의 꽃들은 방긋거리고 / 응달진 골짜기에 잔설이 보이누나 / 나의 눈 수승대로 자꾸만 쏠려 / 수승을 그리는 마음 더욱 간절하다 / 언젠가 한 두루미 술을 가지고 / 수승의 절경을 만끽 하리라."

자연암반을 초석으로 삼은 요수정은 격조 높은 정자건물의 양식을 잘 반영했다.

수승대의 명물인 거북바위에 새겨진 선현들의 시구가 주변 경치와 어우러져 아름답다.

구연교를 지나면 신권 선생이 풍류를 즐기며 제자를 가르친 정자 요수정(樂水停)이 등장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자연암반을 초석으로 이용했다. 우물마루에 사방으로 계자 난간을 둘렀다. 가구의 짜임이 견실하고 네 곳의 추녀에는 정연한 부챗살 형식의 서까래를 배치해 격조 높은 정자건물의 양식을 잘 반영했다. 수승대를 지나 계속 길을 따르다 보면 송계사가 나타난다. 덕유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고찰이다. 절로 드는 길이 운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한겨울 자연휴양림에서 느끼는 청량감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찾을 만하다. 옛날 금원숭이가 하도 날뛰는 바람에 한 도승이 그를 바위 속에 가뒀다고 해서 금원산이라 불린다. 금원산에는 크게 이름난 골짜기가 두 곳 있다. 유안청계곡과 지재미골이다.

유안청계곡은 조선 중기 이 고장 선비들이 지방 향시를 목표로 공부하던 유안청이 자리한 골짜기다. 유안청폭포와 자운폭포, 소담이 주변 숲과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유안청폭포는 소설가 이태가 쓴 책 〈남부군〉에 빨치산 남녀 500여 명이 목욕하던 곳으로 기록돼 있다.

소나무·편백나무·은행나무로 가득한 겨울 숲은 청량감을 제공한다. 도시생활에 찌든 가슴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콘도식 산막과 통나무집, 야영장 등을 갖춰 하룻밤 묵기에도 좋다.

거창의 별미는 추어탕과 어탕국수다. 남원식 추어탕과 많이 다르다. 국물이 맑고 향이 세다. 어탕국수는 미꾸라지·피라미·붕어 등 잡어와 배추·부추를 넣고 푹 끓인 후 국수를 넣은 음식이다. 마늘과 다진 고추를 듬뿍 넣고 산초 가루를 뿌려 먹으면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겨울 햇살이 영롱하게 비추는 옛 담장길 산책, 한옥에서의 그윽한 하룻밤, 겨울 숲에서 보내는 청량한 시간, 몸을 데워주는 따뜻한 음식. 거창 황산마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 없이 좋은 여행지다. G

글과 사진·최갑수(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대전~진주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함양IC에서 88고속도로로 갈아 타고 거창IC로 나오면 된다. 대전~진주 고속도로 지곡IC로 나와도 된다.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거창시외버스터미널까지 1일 8회 고속버스가 운행한다. 약 4시간 소요.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940-3422.

김천역이나 대구역에서 하차 →거창시외버스터미널→시내버스터미널→위천면행 버스 승차(버스 번호 따로 없음)

잠잘 곳 | **황산마을 전올주가옥(055-943-0141)·신순범가옥(055-943-0648)·신용원가옥(055-942-5804)·신외범가옥(055-943-0003)·신종범가옥(055-943-0160)**에서 한옥민박을 체험할 수 있다. **금원산자연휴양림(www.greencamp.go.kr 055-940-8700)**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다.

불행하다면 이 아이의 눈을 보라

〈아이처럼 행복하라〉

알렉스 김 지음
공감과 기쁨 · 13,800원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포토그래퍼 알렉스 김의 〈아이처럼 행복하라〉의 저자인 포토그래퍼 알렉스김은 이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겼다.

티베트·네팔·파키스탄의 해발 3,000미터 하늘마을. 높은 고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보통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하늘마을 사람들의 삶이 생생한 글과 사진을 통해 그대로 나타난다.

이곳 사람들은 세 살배기 아이나 100세 할아버지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늘을 닮은 맑은 눈을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는 아이라서 행복하고, 어른들은 아이처럼 살아 행복하다. 산소·물·먹거리·학교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행복을 누리며 구름처럼 살아간다.

사진 속 하늘마을 아이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방인의 눈에는 아이들이 불쌍해 보인다.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입가에는 사진 속 아이들을 닮은 미소가 번진다.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저자는 10여 년 전 하늘마을로 올라갔다. 하늘마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함께 뛰놀며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정작 아이의 눈 속에 비친 것은 그 자신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늘마을 아이들과 아이처럼 사는 어른의 눈 속에서 찾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는 사진 찍는 저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두 그 아이의 눈 속에 있다. G

글 · 김지연 기자

책 속으로 ‘불가촉천민과 스킨십’

열차 안에서 사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가촉천민이었습니다. 아무도 아이와 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아이를 불러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아이는 스킨십에 익숙해졌습니다. 열차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우리는 뉴잘파이구리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와 작별인사를 하려고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오기 전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 밖에서 창살을 붙잡고 엉엉 우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열차 엔진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묻혀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68페이지)

새로 나온 책

사람이 그리움을 부른다
함길수 지음 | 상상출판 · 14,800원

탐험여행가로 살아온 저자가 평생 꼭 한 번은 가 봐야 할 곳으로 12개국 46곳을 추천한다. 생생한 자연과 문화, 스릴 넘치는 모험과 아늑한 휴식, 유구한 역사를 보고 느끼게 해줄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자동차 탐험가이자 사진가로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시선으로 지구촌 곳곳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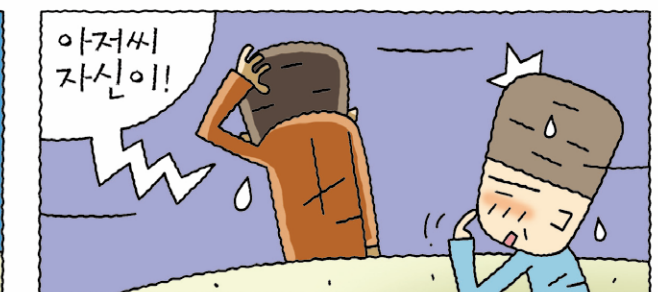
우리는 은퇴 걱정 없이 부자로 산다
문근식 외 지음 | 쌤앤파커스 · 14,000원

연 소득 10억원을 웃도는 부농 15명의 성공 스토리를 엮었다. 농업경영의 혁신을 이끈 후계 농업경영인들이 농부의 삶을 고민한 끝에 얻은 성공 비결을 자세히 들려준다. 못쓰는 자투리땅을 주말농장으로 돌려 수천 만원을 벌고, 팔지 못하고 남은 애물단지 쌀을 쌀과자로 가공해 기내식으로 납품하는 식이다. 이들은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농업 속에 답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왜! 이것이 몸에 좋을까?
고바야시 히로유키 지음 | 김영사 · 12,000원

일본 준텐도대 의학부 교수이자 일본체육협회 스포츠 닥터인 저자가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검증하며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했다. 자율신경은 의지와 관계없이 내장·혈관 등의 기능을 자동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한다. 지은이는 “자율신경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그랬느냐고요?

글과 그림 · 최영순

생각을 조심해,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 습관은 인격이 되니까. 인격을 조심해, 인격은 운명이 되니까. -영화<철의 여인>중에서

주인공 아이다로 분한 차지연의 열창으로 무대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고대와 현대 아우른 무대·연기 역동적 조화로 스토리 생동감

뮤지컬 〈아이다〉

세계적 뮤지컬 〈아이다〉가 7년 만에 다시 서울공연을 갖는다. 오는 4월 28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아이다〉는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 팀 라이스 콤비가 만든 작품이다. 1998년 '공연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불리는 토니상을 수상했다. 이미 400회 가까이 한국관객을 만난 작품이다.

연출 키스 배튼을 비롯한 제작진은 까다로운 오디션을 통해 〈아이다〉에 가장 걸맞은 배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아이다 역에 소냐와 차지연이 각각 캐스팅됐다. 아이다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라다메스 역은 배우 김준현과 최수형이 맡았다. 이 외에도 20명의 앙상블, 연출가 박칼린, 브로드웨이 스태프가 함께한다.

뮤직 비디오를 보는 듯한 현대적 춤도 인상적이다. 〈아이다〉의 안무가 웨인 실렌토는 모든 스타일의 댄스를 총동원해 뮤지컬의 스토리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게 했다. 아프리카 정통 춤부터 엘튼 존의 음악인 팝과 록에 어울리는 현대적이고 대중적 스타일의 춤까지 다양한 장르의 댄스가 함께한다.

극의 배경은 이집트가 인근의 모든 국가를 식민지로 삼고 그 백성들을 마구 죽이거나 노예로 삼던 시절이다.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공주 암네리스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으며 약혼한 사이다. 암네리스가 갈수록 라다메스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다면 라다메스는 사랑보다 나일강 일대를 탐험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라다메스 장군에게 붙잡혀 시녀들과 함께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온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는 신분을 숨긴 채 암네리스의 시녀가 된다. 아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시녀로 바꿔놓은 라다메스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라다메스도 뻣뻣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이다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모험을 좋아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이 젊은 남녀는 피해보려 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두 사람에게 조국과 사랑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들이닥치고, 결국 두 사람은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글·김지연 기자

기간 4월 28일까지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관람료** 6만~12만원 **문의** 1544-1555

신시컴퍼니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전시 **염지희展**

수많은 자아가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자아 찾기를 시도한다. 작품에는 체스 판을 연상시키는 바닥, 공간을 분리하는 천막, 그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이 맡은 배역을 충실히 보여주는 연극배우들이 등장한다. 배우로 탈바꿈한 작가의 자아들은 가상의 연극무대에서 각기 다른 톤과 캐릭터로 분열되지만 미세한 끈으로 연결돼 있다. 이는 여러 자아가 결국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전시는 타인을 통한 자기반성의 시간과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기간 2월 28일까지
장소 갤러리 이마주
관람료 무료
문의 02-557-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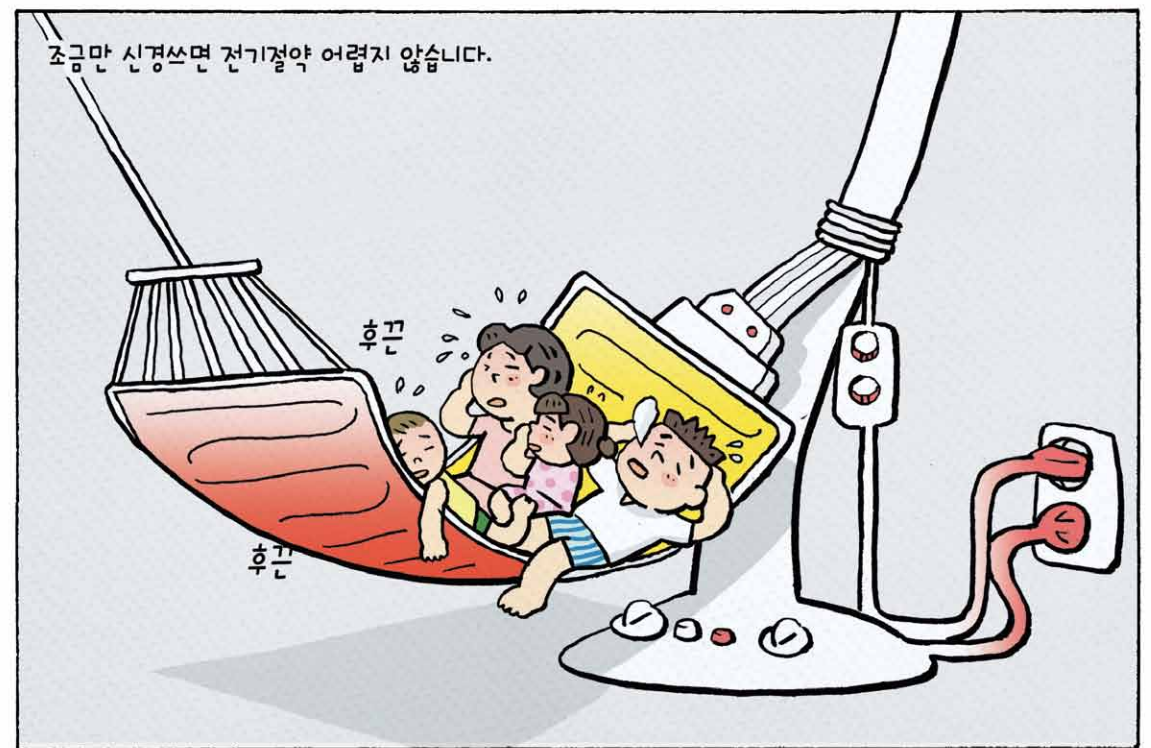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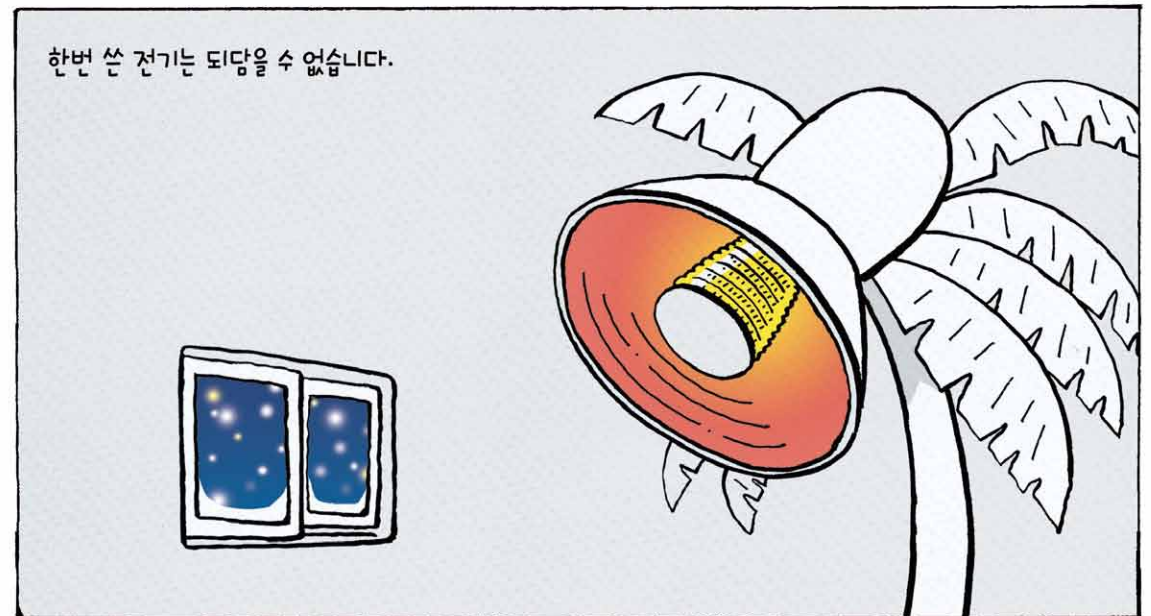
연극 **김종욱 찾기**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가 2월 9일부터 새로운 캐스팅으로 공연한다. '김종욱, 첫사랑을 찾아 주는 남자' 역에는 두터운 여성 팬 층을 거느리는 김재범과 소극장 공연무대의 스타 성두섭이 열연한다. 또 남성그룹 '초신성'의 리더 윤학이 김종욱으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한다. '첫사랑을 못 잊는 여자' 역에는 곽선영·최주리가 더블 캐스팅됐다.

2006년 선보인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첫 무대부터 거의 매진 행진을 이어왔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객석 점유율은 83%, 관람객은 42만여 명에 달한다.

기간 2월 9일부터 오픈 런
장소 대학로 예술마당 1관
관람료 4만5000~5만원
문의 02-501-7888

잘못된 만남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전기 절약 지금 실천하세요.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풍요로움의 함정

날지 않고도 배불리 먹는 '닭둘기'에게 날지 못하는 재앙 닥쳐

몇 년 전 부산고검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부산항만청의 초대로 배를 타고 부산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육지에서 바라보는 부두와 바다에서 바라보는 부두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부산항을 거의 한 바퀴 돌았을 무렵 특이한 장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정박한 배가 부둣가에 지어진 건물과 굵은 파이프로 연결돼 있었다. 연료 파이프라고 하기에는 너무 굵고 해서 궁금증이 일었다. 안내자에게 물어보니 곡물을 실은 배가 파이프를 통해 곡물을 하역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파이프 주변에는 하얀 가루가 눈처럼 내렸다. 곡물 부스러기였다. 파이프 위에서는 수많은 새가 곡물 부스러기를 쪼아먹고 있었다. 이런 천국이! 어렵게 날아올라 낟알이나 벌레를 찾지 않아도 눈앞에 낟알이 눈처럼 쌓여있는 것이다. 새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듯했다. 우리가 늘 부러워하던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놈들 참 좋겠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안내자가 말했다.

"새들이 날지 않고도 저렇게 먹을 수 있다 보니 너무 먹어 뚱해져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에 떨어진 낟알을 주워먹다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치여 죽는 새가 부지기수입니다."

풍요가 새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재앙이라는 말이었다.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옛날 노르웨이 어부들은 주로 정어리를 잡았다. 정어리는 성질이 급해 잡자마자 죽어버린다. 그래서 어부들은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냉동 처리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은 정어리를 산 채로 잡아왔다. 살아있는 정어리는 냉동 정어리보다 몇 곱절 비쌌다. 그러나 그 어부는 누구에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그 어부가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가 산 채로 정어리를 옮긴 비결이 궁금해 그의 어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어선에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수조에서 메기 한 마리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무릎을 쳤다. 수조 안에 넣은 정어리들은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느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 박사가 즐겨 인용했던 이야기다.

중앙포토

곡물을 하역하는 부둣가의 새들은 날지 않고도 배불리 모이를 먹는다. 사람들은 그런 천국에서 노니는 듯한 새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런데 그런 새들은 둔한 몸짓으로 도로의 낟알을 주워먹다 치여 죽는 경우가 많다.

나는 어린 시절 몸이 몹시 약했다. 달리기는 늘 꼴찌였다. 축구를 해도 골 한번 넣어본 기억이 없다. 별명은 늘 '갈비씨'였다. 몸으로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전지검장 시절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러 다녔다. 남들은 한 달이면 상급반으로 옮겨갔지만 나는 무려 석 달이나 강사의 핀잔을 들으며 같은 수업을 듣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악착같이 공부하는 길밖에 없었다. 대학시절에도 형편이 어려워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연애하는 것 등은 내게는 사치로 여겨졌다. 나의 이런 부족함이 사법시험 합격에 매진하도록 만든 배경이었다고 믿는다. 지금도 문득 조금만 더 여유로웠으면 하는 욕심이 일고는 한다. 그럴 때마다 곡물 컨테이너의 새나 메기가 든 수조의 정어리를 떠올린다.

부족함은 늘 나의 안일한 일상을 깨우는 '죽비(竹篦)' 역할을 한다. 부족함이 때로는 축복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G

글 · 조근호 (변호사 · 전 법무연수원장)